

<OVS- 고전산문 - 진행본> : 유대종T, 강세진T

1) 최척전 - 조위한

마침내 최척을 포함한 명나라 군사는 길을 떠나 요양에 이르렀으며, 여기에서 오랑캐 땅으로 수백 리 걸어 들어가 조선 군사와 나란히 우미새에 진을 쳤다. 그러나 주장(主將)이 적을 가볍게 여기고 싸우다가 전군이 크게 패하였다. 오랑캐들은 명나라 병사는 부류(부류)를 가리지 않고 남김없이 다 죽이되, 조선 병사는 유혹하거나 위협하기만 하고 하나도 죽이지 않았다. 이에 교유격이 패졸 10여 명을 거느리고 조선 진영으로 들어가 조선 옷을 구걸하자, 조선의 원수(元帥)인 강홍립은 남은 옷을 지급하여 죽음을 면하게 하였다. 그런데 종사관 이민환이 이러한 사실이 오랑캐에게 발각될까 두려워 다시 옷을 뺏고 중국 사람들을 붙잡아 적진에 보내 버렸다. 최척은 본래 조선 사람이었기 때문에 분주하고 어지러운 순간을 틈타 명나라 사람을 세워 놓은 줄에서 홀로 빠져나와 죽음을 면하였다. 강홍립이 투항하자 최척은 조선의 장졸들과 함께 오랑캐 추장의 뜰에 감금되었다.

이때 몽석도 남원에서 무예를 익히다가 출전하여 원수의 진중에 있었다. 오랑캐가 항복한 군졸들을 나누어 놓을 때 최척은 몽석과 같은 곳에 갇히게 되었다. 그래서 부자가 서로 만나게 되었으나, 최척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몰랐다. 몽석은 최척이 말을 더듬거리는 것을 보고, 조선말을 할 줄 아는 명나라 병사가 죽음을 당할까 두려워서 조선 사람 행세를 한다고 의심했다. 그래서 최척에게 어디서 왔느냐고 따져 물었다. 최척도 오랑캐가 실상을 조사하는 것으로 의심해 말을 이리저리 돌리며 전라도에 있었다고 하기도 하고, 충청도에 산다고 말하기도 했다. 몽석은 마음속으로 더욱 이상하게 생각했으나 그 실상을 알 수가 없었다.

이윽고 몇 개월이 지난 후에 최척과 몽석은 정의(情誼)가 매우 두터워지고 서로 동병상련하는 처지인지라, 조금도 시기하거나 의심하지 않게 되었다. 최척은 마침내 자기가 평생 동안 겪어 왔던 내력을 조금도 숨김 없이 사실대로 털어놓게 되었다.

몽석은 최척의 말을 듣고 놀라서 낯빛이 변하더니, 슬픈 듯 기쁜 듯 어쩔 줄을 몰라하다가 갑자기 물었다. “잃어버린 아이는 나이가 몇 살이며, 신체의 모양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최척이 말했다.

“갑오년 10월에 아이를 낳았으며, 정유년 8월에 잃어버렸다네. 그리고 등 위에 붉은 사마귀가 있는데, 마치 어린 아이의 손바닥 같다네.”

몽석이 말을 못하고 놀라 쓰러졌다가 옷통을 벗어 등을 보이며 말했다.

“제가 바로 그 아이입니다.”

최척은 비로소 몽석이 자기 아들임을 확인한 후 부친과 장모님의 생사 여부를 물었으며, 그들이 아직 살아 있다는 것을 알고는 희비가 교차하여 서로 붙들고 통곡하였다.

- 조위한, 「최척전」

- S :
- BL :
- E :
- R :
- 관계 :
- 개념어 :

1. 오랑캐의 이중적인 태도는 ‘최척’와 ‘몽석’이 만날 수 있는 개연성을 부여해 준다. (○, ×)
2. ‘최척’과 ‘몽석’은 서로를 오해하며 갈등을 빚고 있다. (○, ×)
3. 시간적 배경을 통해 상황의 암울함을 부각하고 있다. (○, ×)

4. ‘붉은 사마귀’는 ‘최척’과 ‘몽석’이 부자 관계임을 드러내는 증거이다. (○, ×)
 5.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주인공이 처한 상황이 드러나 있다. (○, ×)

1. ○, 2. ×, 3. ×, 4. ○, 5. ○

[소설 해석] 1) 최척전 - 조위한

마침내 최척을 포함한 명나라 군사는 길을 떠나 요양에 이르렀으며, 여기에서 오랑캐 땅으로 수백 리 걸어 들어가 조선 군사와 나란히 우미새에 진을 쳤다. 그러나 주장(主將)이 적을 가볍게 여기고 싸우다가 전군이 크게 패하였다. 오랑캐들은 명나라 병사는 부류(部類)를 가리지 않고 남김없이 다 죽이되, 조선 병사는 유혹하거나 당시 조선 사람들의 바람이 담겨 있는 구절 위협하기만 하고 하나도 죽이지 않았다. 이에 교유격(交遊格)이 패졸 10여 명을 거느리고 조선 진영으로 들어가 조선 옷을 구걸하자, 조선의 원수(元帥)인 강홍립(姜洪立)은 남은 옷을 지급하여 죽음을 면하게 하였다. 그런데 종사관 이민환(李敏煥)이 이러한 사실이 오랑캐에게 발각될까 두려워 다시 옷을 뺏고 중국 사람들을 붙잡아 적진에 보내 버렸다. 최척은 본래 조선 사람이었기 때문에 분주하고 어지러운 순간을 틈타 명나라 사람을 세워 놓은 줄에서 홀로 빠져나와 죽음을 면하였다. 강홍립이 투항하자 최척은 조선의 장졸들과 함께 오랑캐 추장의 뜰에 감금되었다.

해석 주인공인 ‘최척’과 함께 한 명나라 군사는 ‘요양’에 이르렀다. 그들은 적지로 들어가 조선 군사와 나란히 진을 쳤다. 그런데, 장군이 적군을 만만히 여겼다가 크게 패하였다. 명나라 병사는 몰살을 당했지만, 조선 병사는 죽이지 않았다. 이런 상황 때문에 ‘교유격’은 패졸 10명과 함께 조선 진영으로 들어가 조선 옷을 구걸하였고, 조선의 원수인 ‘강홍립’은 조선의 옷을 건네주어 그들의 죽음을 면하게 하였다. 하지만 ‘이민환’이는 이런 사실이 적군에게 발각될까봐 ‘강홍립’이 준 옷을 다시 빼앗고, 중국 사람들을 붙잡아서 적진에 보내버렸다. ‘최척’은 본래 조선 사람이므로 명나라 사람을 세워 놓은 줄에서 홀로 빠져 나와 죽음을 면하였다. 이때, ‘강홍립’도 적군에게 투항하게 되었고, 결국 조선 장졸들과 함께 감금되었다.

이 부분은 많은 사건이 요약되어 나와 있으므로, 잘 정리해서 이해해 두어야 한다.
 [요약 : 오랑캐와 전쟁 중에 포로로 잡힘]

이때 몽석도 남원에서 무예를 익히다가 출전하여 원수의 진중에 있었다. 오랑캐가 항복한 군졸들을 나누어 놓을 때 최척은 몽석과 같은 곳에 갇히게 되었다. 그래서 부자가 서로 만나게 되었으나, 최척은 그가 어떤 사 서술자만이 알고 있는 정보 람인지를 몰랐다. 몽석은 최척이 말을 더듬거리는 것을 보고, 조선말을 할 줄 아는 명나라 병사가 죽음을 당할까 두려워서 조선 사람 행세를 한다고 의심했다. 그래서 최척에게 어디서 왔느냐고 따져 물었다. 최척도 오랑캐가 실상을 조사하는 것으로 의심해 말을 이리저리 돌리며 전라도에 있었다고 하기도 하고, 충청도에 산다

고 말하기도 했다. **몽석**은 마음속으로 더욱 이상하게 생각했으나 그 실상을 알 수가 없었다.

해석 이때 ‘몽석’이도 남원에서 무예를 익히다가 전장에 나서게 되었고, 오랑캐에게 잡히게 되었다. ‘최척’과 ‘몽석’은 아버지와 아들인데, 서로 알아보지 못하였다. 몽석은 ‘최척’이 명나라 병사인데 죽임을 당할까봐 조선 사람 행세를 한다고 의심을 하게 되었다. ‘최척’ 역시 몽석을 의심하였고, 둘은 서로를 알아보지 못한 채 지내게 되었다.

[요약 : 최척과 몽석이 우연하게 만났는데 알아보지 못함.]

이윽고 몇 개월이 지난 후에 **최척과 몽석**은 정의(情誼)가 매우 두터워지고 서로 동병상련하는 처지인지만, **요약적 제시가 나타난 부분**

조금도 시기하거나 의심하지 않게 되었다. **최척**은 마침내 자기가 평생 동안 겪어 왔던 내력을 조금도 숨김 없이 사실대로 털어놓게 되었다.

해석 몇 개월이 지난 후, ‘최척’과 ‘몽석’은 정이 들어, 서로를 동병상련하는 처지가 되었다. 따라서 이전에는 서로가 의심하여 사실을 말하지 못하였는데, 이제야 말하게 된 것이다.

[요약 : 최척과 몽석이 서로 의심하지 않음.]

몽석은 최척의 말을 듣고 놀라서 낯빛이 변하더니, 슬픈 듯 기쁜 듯 어쩔 줄을 몰라하다가 갑자기 물었다. “잃어버린 아이는 나이가 몇 살이며, 신체의 모양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최척이 말했다.

“갑오년 10월에 아이를 낳았으며, 정유년 8월에 잃어버렸다네. 그리고 등 위에 붉은 사마귀가 있는데, 마치 **부자 관계임을 알리는 징표** 어린아이의 손바닥 같다네.”

몽석이 말을 못하고 놀라 쓰러졌다가 옷통을 벗어 등을 보이며 말했다.

“제가 바로 그 아이입니다.”

최척은 비로소 몽석이 자기 아들임을 확인한 후 **부친과 장모님**의 생사 여부를 물었으며, 그들이 아직 살아 있다는 것을 알고는 희비가 교차하여 서로 붙들고 통곡하였다.

해석 최척의 이야기를 듣다가 ‘몽석’이 먼저 놀라는데, 아마 서로가 부자인 것을 알아 차렸을 듯하다. 최척은 이때 ‘붉은 사마귀’를 언급하는데, 몽석이의 등에 그것이 있었다. (징표는 소설에서 중요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꼭 체크해 두고 읽어야 한다.)

최척은 몽석이 자기 아들인 것을 확인 후, ‘자신의 아버지(몽석이에게는 할아버지)와 장모님(몽석이에게는 외할머니)의 생사 여부’를 물었고, 그들이 살아 있다는 사실에 놀라며 통곡하였다. 이 장면만을 고려할 때에는, 최척은 자신의 가족의 생사 여부를 제대로 알고 있지 않은 것으로 이해된다.

[요약 : 최척과 몽석이 서로 부자관계인 것을 알게 됨. (헤어졌다 재회하는 장면)]

- 조위한, 「최척전」

2) 흥부전 - 작자 미상

추석날 아침이었다. 배가 고파 죽겠으니 영근 박 한 통을 따서 박속이나 지저 먹자 하고 박을 따서 먹줄을 반듯하게 굵고서 흥부 내외는 톱을 마주 잡고 켜다.

이렇게 밀거니 당기거니 켜서 툇 타 놓으니 오색 채운이 서리며 청의 동자 한 쌍이 나오는 것이었다. 왼손에 병을 들고 오른손에 쟁반을 눈 위로 높이 받쳐 들고 나온 그 동자들은, “이것을 값으로 따지면 억만 냥이 넘으니 팔아서 쓰십시오.” 하고 홀연히 사라져 버렸다.

박 한 통을 또 따놓고 슬근슬근 톱질이다. 쓱삭 쿵쿵 툇 타 놓으니 속에서 온갖 세간불이가 나왔다. 또 한 통을 따서 먹줄 쳐서 톱을 길고 툇 타 놓으니 순금 궤가 하나 나왔다. 금거북 자물쇠를 채웠는데 열어 보니 황금, 금밀화, 호박, 산호, 진주, 주사, 사향 등이 가득 차 있었다. 그런데 쏘으면 또 가득 차고 또 가득 차고 해서 밤낮 옛새를 쏘고 나니 큰 부자가 된 것이다.

[중략 부분 줄거리] 놀부는 흥부의 말을 듣고 제비 다리를 일부러 부러뜨린 후 복수박을 얻게 되나 이것을 켜다 보니 온갖 재난을 겪게 된다.

고두쇠가 새총알같이 달려가서 놀부놈의 털미를 썩썩 눌러 짓고 풍우같이 몰아다가 생원님들 앞에 꿇어앉았다. “이놈 놀부야, 들어라! 양반댁에 쌓인 똥을 해지기 전에 다 쳐내지 못하면 죽을 줄을 알아라!”

놀부놈은 기왓장 위에 꿇어앉은 채 계집을 시켜 돈 오백 냥을 갖다 놓고 거름 장사들을 닦치는 대로 불러다가 샅전을 후히 주고 똥을 처낸 다음에야 겨우 풀려났다.

놀부 내외 서로 붙들고 갈 곳이 없어 통곡하는데, 이때 건너 마을 흥부가 형이 꽤가망신했다는 말을 듣고 급히 노복을 거느리고 와서 놀부 양주와 조카들을 데리고 제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흥부는 안방을 치우고 형님 내외를 거처케 한 다음 의식을 후히 내어 대접하며 위로하고, 한편으로 좋은 터를 잡아 수만금을 아낌없이 들여 집을 짓되 제 집과 같게 하고 세간이며 의복 음식을 똑같이 하여 그 형을 살게 하여 주었다.

- 작자 미상, 「흥부전」

- S :
- BL :
- E :
- R :
- 관계 :
- 개념어 :

1. 온갖 금은보화를 나열함으로써 **흥부가 부유해진 상황이 드러난다.** (○, ×)
2. 흥부는 놀부의 딱한 사정을 듣고 자신과 함께 살기로 **마음먹었다.** (○, ×)
3. ‘흥부’와 ‘놀부’를 통해 권선징악이라는 보편적인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 ×)
4. 의태어를 통해 인물의 행동에 생동감을 **부여하고 있다.** (○, ×)
5. 시간의 흐름이 정지되는 듯한 느낌을 부여하도록 배경이 묘사되었다. (○, ×)

1. ○, 2. ×, 3. ○, 4. ○, 5. ×

[소설 해석] 2) 흥부전 - 작자 미상

추석날 아침이었다. 배가 고파 죽겠으니 영근 박 한 통을 따서 박속이나 지저 먹자 하고 박을 따서 먹줄을 **구체적인 시간**

반듯하게 긋고서 **흥부 내외**는 톱을 마주 잡고 켜다.

이렇게 밀거니 당기거니 켜서 툯 타 놓으니 **오색 채운이** 서리며 청의 동자 한 쌍이 나오는 것이었다. 왼손

비현실적인 장면이 나타남

에 병을 들고 오른손에 쟁반을 눈 위로 높이 받쳐들고 나온 그 **동자**들은, “이것을 값으로 따지면 억만 냥이

넘으니 팔아서 쓰십시오.” 하고 홀연히 사라져 버렸다.

박 한 통을 또 따놓고 슬근슬근 톱질이다. **썩삭 쿵각 툯 타 놓으니** 속에서 온갖 세간붙이가 나왔다. 또 한

음성 상징어를 통한 묘사

통을 따서 먹줄 쳐서 톱을 걸고 툯 타 놓으니 순금 궤가 하나 나왔다. 금거북 자물쇠를 채웠는데 열어 보니

황금, 금밀화, 호박, 산호, 진주, 주사, 사향 등이 가득 차 있었다. 그런데 쏟으면 또 가득 차고 또 가득 차고

소재의 나열

해서 밤낮 옛새를 쏟고 나니 큰 부자가 된 것이다.

해석 흥부 부부가 배가 고파서 박을 따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박 안에서 동자가 나오더니 값비싼 물건들을 흥부 부부에게 주고 떠났다. 다른 박도 역시 마찬가지로 온갖 보석들과 세간들이 나오게 되었고 큰 부자가 되었다.

[요약 : 가난한 흥부네가 박을 탄 후 부자가 됨.]

[중략 부분 줄거리] **놀부**는 흥부의 말을 듣고 제비 다리를 일부러 부러뜨린 후 복수박을 얻게 되나 이것을 켜다 보니 온갖 재난을 겪게 된다.

고두쇠가 새총알같이 달려가서 놀부놈의 털미를 퍽퍽 눌러 **질고 풍우같이 몰아다가** 생원님들 앞에 꿇어앉 **직유적 표현으로 대상을 나타냄** **직유적 표현으로 대상을 나타냄**

했다.

“이놈 놀부야, 들어라! 양반댁에 쌓인 똥을 해지기 전에 다 쳐내지 못하면 죽을 줄을 알아라!”

놀부는 기왓장 위에 꿇어앉은 채 계집을 시켜 돈 오백 냥을 갖다 놓고 거름 장사들을 닦치는 대로 불러다가 샅전을 후히 주고 똥을 처낸 다음에야 겨우 풀려났다.

해석 욕심 많은 놀부는 더 큰 부자가 되기 위해 일부러 제비 다리를 부러뜨렸는데, 오히려 부자가 되기커녕 벌을 받게 되었다.

[요약 : 벌을 받고 있는 놀부의 모습이 나타남.]

놀부 내외 서로 붙들고 갈 곳이 없어 통곡하는데, 이때 건너 마을 **흥부**가 형이 꽤가망신했다는 말을 듣고 급히 노복을 거느리고 와서 **놀부 양주와 조키**들을 데리고 제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흥부**는 안방을 치우고

형님을 공경하는 흥부의 따뜻한 마음씨가 나타나는 부분

형님 내외를 거처케 한 다음 의식을 후히 내어 대접하며 위로하고, 한편으로 좋은 터를 잡아 수만금을 아낌없이 들여 집을 짓되 제 집과 같게 하고 세간이며 의복 음식을 똑같이 하여 그 형을 살게 하여 주었다.

해석 홍부는 자신의 형님이 패가망신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급히 형님을 찾아 모시게 되었다. 이때 충분히 사랑방이나 별관을 내어 줄 수 있었음에도 안방을 내어주는 모습에서 형님을 공경하는 홍부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요약 : 형님을 생각하는 아우의 따뜻한 마음씨가 나타남.]

- 작자 미상, 「홍부전」

3) 콩쥐팥쥐전 - 작자 미상

이때 뒤로부터 감사가 도입하는 행차가 위의를 갖추어 오느라고 ‘에라 게 들어 섰거라!’ 하는 벽제 소리*를 지르며 잡인을 치우는 바람에, 콩쥐는 허겁지겁 냇물을 뛰어 건너려다 그만 잘못되어 신 한 짝을 물속에 빠뜨리고야 마니라. 그러나 무섭고 다급할 즈음이라 콩쥐는 감히 건져 보려고도 하지 못하고서 아까운 생각만을 품은 채로, 외가로 달려가더라. 뒤따른 행차가 그 길을 지나칠새, 감사가 무심히 앞길을 바라보니 이상한 서기*가 눈에 띄는지라, 하리*를 지휘하여 그 서기가 떠도는 언저리를 찾아보게 하나, 별다른 것은 없고 다만 개울물 속에 아이 신 한 짝이 있어 그러하다 하기에 감사는 심중에 매우 기이하게 여기어 하리로 하여금 그 신 짝을 간수토록 일러 두고 도입한 후에 곧이어 신 짝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서 각처로 사람을 보내더라.

이럴 즈음 콩쥐는 외가에 가서 외삼촌과 외숙모께 절하고 뵈은즉 그때까지 못 오는 줄 알고 섭섭히 생각하고 있던 외삼촌 내외는 매우 기꺼워하며, 어머니가 별세하신 후로 고생살이가 많음을 진심으로 위로하여 좋은 음식을 갖춰 차려 주거늘, 홀로 계모인 배 씨의 기색만이 좋지 아니하여 콩쥐를 보고 말하였다.

“콩쥐야, 네 짜던 베는 다 짜고 왔느냐? 말리던 걸피도 다 쥘어 놓고 왔느냐? 또 집은 어찌 하려고 비워 두고 왔느냐? 그 비단옷은 어디서 웬 것을 훔쳐 입었느냐? 응? 어떤 놈이 네 대신하여 주더냐?”

이렇듯이 계모는 콩쥐를 몰아치며, 남 못 보는 틈틈이 꼬집어 뜯으면서 따져 묻는지라, 콩쥐는 기가 막히어 할 수 없이 그 사이에 겪은 바를 낱알이 아뢰니라. 그리하여 콩쥐의 얘기를 들던 계모는 눈알이 다시 삼모은행*처럼 변하여지고 얼굴색이 창기와처럼 푸르러지니 그 흉악한 속마음이야 어찌 다 알 수 있으리오?

그때는 집 안이 터지도록 손들이 모여 있었는지라, 이 구석 저 구석에서 콩쥐의 불쌍한 이야기를 주고받으니, “저 새악씨는 어머니가 없으니 그 고생이 오죽할꼬?”

하는 사람도 있고,

“저 새악씨가 계모한테 구박을 받으면서, 되도록 말없이 공궤하여* 나아가니, 부친에게는 둘도 없는 효녀였다.”

하고, 칭송하는 이도 있고,

“저렇듯이 고생을 은근히 당하는데도 부친은 전혀 모르는 것 같으니, 어찌하였든 그 부친은 그런 사람이라.”

하는 사람도 있고,

“이번에 올 때에는 새 떼들이 모여들어 걸피 석 섬을 부리로 쥘어 주고, 다시 하늘에서 직녀가 내려와 베도 짜 주고 올라갔다 하는데, 그런 기이한 일로 미루어 보더라도 저 새악씨는 반드시 귀히 되리라.”

하는 사람도 있고,

“저 옷도 직녀가 주고 간 것이라 하는데, 어떤 까닭에 신 한 짝이 없을까?” 하며 모든 손들의 공론이 분분한데, 이때 마침 관가에서 차사가 나와 동리를 돌아다니며,

“이 동리에 신 한 짝을 잃은 사람이 있거든 이리 와서 말하고 찾아가라.”

하고 외치면서 바로 콩쥐의 외갓집 문전에 이르더니, 잔치에 모인 여러 손들께까지 일일이 그 신을 신겨 보이다라.

이때 배 씨는 속으로 생각하되,

‘저 신 짝은 분명히 콩쥐년이 잃어버린 것인데, 그 옷과 한가지로 신발도 천녀가 내려 와 주고 간 것이 틀림없은즉, 조년에게 무슨 별다른 일이 있을 것이요. 또한 관가에서 저렇듯이 신 임자를 찾으니 필시 상을 후히 내릴 것이라.’

- 작자 미상, 「콩쥐팥쥐전」

* 벽제(辟除) 소리 : 지위가 높은 사람이 행차할 때, 하급 관리들이 잡인의 통행을 금하던 소리.

* 서기(瑞氣) : 상서로운 기운.

* 하리(下吏) : 서리(胥吏). 관아에 속하여 말단 행정 실무에 종사하던 구실아치.

* 삼모은행 : 모가 나 있는 은행 열매를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짐.

* 공궤하여 : 음식을 드리어.

- S :
- BL :
- E :
- R :
- 관계 :
- 개념어 :

1. 대화를 통해 **중심**이 되는 인물에 대한 평가를 드러내고 있다. (○, ×)
2. 이어질 내용에서 **'신작'이 내용 전개에서**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됨을 미리 보여주고 있다. (○, ×)
3. 감각적인 표현을 통해 인물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 ×)
4. '배 씨'는 '콩쥐'가 후한 상을 **받을 것 같아** 걱정을 하고 있다. (○, ×)
5. 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생각이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다. (○, ×)
6. **독백적인 어조를 통해** 현실과 단절된 인물의 의식을 표현하고 있다. (○, ×)

1. ○, 2. ○, 3. ○, 4. ○, 5. ○, 6. ×

[소설 해석] 3) 콩쥐팥쥐전 - 작자 미상

이때 뒤로부터 **감사가 도입하는 행차**가 위의를 갖추어 오느라고 '에라 게 들어 섰거라!' 하는 벽제 소리*를 지르며 잡인을 치우는 바람에, **콩쥐**는 허겁지겁 냇물을 뛰어 건너려다 그만 잘못되어 **신 한 짝을 물속에 빠뜨리고야 마니라**. 그러나 무섭고 다급할 즈음이라 콩쥐는 감히 건져 보려고도 하지 못하고서 아까운 생각만을 품은 채로, **외가**로 달려가더라. 뒤따른 행차가 그 길을 지나칠새, **감사**가 무심히 앞길을 바라보니 이상한 서기가 눈에 띄는지라, **하리***를 지휘하여 그 서기가 떠도는 언저리를 찾아보게 하나, 별다른 것은 없고 다만 **상서로운 기운이 도는 신발을 발견함** 개울물 속에 아이 신 한 짝이 있어 그러하다 하기에 감사는 심중에 매우 기이하게 여기어 하리로 하여금 그 신 짝을 간수토록 일러 두고 도입한 후에 곧이어 신 짝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서 각처로 사람을 보내더라.

해석 콩쥐는 감사가 도입하는 행차가 있자 허겁지겁 냇물을 뛰어 건너려고 했다. 그러다 잘못하여 신발 한 짝을 떨어뜨리게 되었다. (소설을 읽다 주인공과 관련된 소재가 있으면 무조건 체크해 두어야 한다.) 콩쥐는 마음이 두렵고 다급하여 신발을 건지려는 시도도 못한 채 외가로 달려갔다. 이때, 감사는 앞 쪽을 바라보았다가 상서로운 기운을 발견하였다. 이상한 생각이 들어, 감사는 아랫사람을 시켜 그것을 찾아오게 하였다. 그것은 콩쥐가 잃어버린 신발 한 짝이었다. 감사는 이를 기이하게 여겨서, 하리를 시켜 각처로 신발 주인을 찾아오게 하였다.

[요약 : 신발 한 짝을 잃어버린 콩쥐와 그것을 발견한 감사]

이럴 즈음 **콩쥐**는 **외가**에 가서 **외삼촌과 외숙모**께 절하고 뵈은즉 그때까지 못 오는 줄 알고 섭섭히 생각하고 있던 **외삼촌 내외**는 매우 기꺼워하며, **어머니**가 별세하신 후로 고생살이가 많음을 진심으로 위로하여 좋은 음식을 갖춰 차려 주거늘, 홀로 **계모인 배 씨**의 기색만이 좋지 아니하여 콩쥐를 보고 말하였다.

“콩쥐야, 네 짜던 베는 다 짜고 왔느냐? 말리던 걸피도 다 찢어 놓고 왔느냐? 또 집은 어찌 하려고 비워 두고 왔느냐? 그 비단옷은 어디서 웬 것을 훔쳐 입었느냐? 응? 어떤 놈이 네 대신하여 주더냐?”

이렇듯이 **계모**는 콩쥐를 몰아치며, 남 못 보는 틈틈이 꼬집어 뜯으면서 따져 묻는지라, **콩쥐**는 기가 막히어 할 수 없이 그 사이에 겪은 바를 낱낱이 아뢰니라. 그리하여 콩쥐의 얘기를 듣던 **계모는 눈알이 다시 삼모은 행*처럼 변하여지고 얼굴색이 청기와처럼 푸르러지니 그 흉악한 속마음이야 어찌 다 알 수 있으리오?**

계모의 모습을 직유적 표현을 통해 드러냄.

서술자의 생각이 나타나는 부분

해석 콩쥐는 외가에 도착해서 어른들께 인사를 드렸다. 외삼촌 부부는 콩쥐를 기쁘게 맞이하며 맛있고 좋은 음식을 대접해 주었다. 다만, 계모인 배 씨만이 콩쥐를 마음에 들지 않아 했다. 그래서 남들이 못보는 틈틈이 콩쥐를 꼬집기도 하고 따져 묻기도 하였다. 콩쥐는 기가 막히지만, 할 수 없이 그 동안의 일을 말하였다. 그 이야기를 듣자 계모는 흉악한 마음을 갖게 되었다.

[요약 : 외가에 도착한 콩쥐와 콩쥐가 미운 계모]

그때는 집 안이 터지도록 손들이 모여 있었는지라, 이 구석 저 구석에서 콩쥐의 불쌍한 이야기를 주고받으니,

“저 새악씨는 어머니가 없으니 그 고생이 오죽할꼬?”

콩쥐를 뜻함

하는 사람도 있고,

“저 새악씨가 계모한테 구박을 받으면서, 되도록 말없이 공궤하여* 나아가니, 부친에게는 돌도 없는 효녀렇다.”

하고, 칭송하는 이도 있고,

“저렇듯이 고생을 은근히 당하는데도 부친은 전혀 모르는 것 같으니, 어찌하였든 그 부친은 그런 사람이라.”

하는 사람도 있고,

“이번에 올 때에는 새 떼들이 모여들어 겉피 석 섬을 부리로 찢어 주고, 다시 하늘에서 직녀가 내려와 **비현실적인 상황이 나타남 → 콩쥐가 후에 귀한 사람이 되는 근거로 이해할 수 있음** 도 짜 주고 올라갔다 하는데, 그런 기이한 일로 미루어 보더라도 저 새악씨는 반드시 귀히 되리라.”

하는 사람도 있고,

“저 옷도 직녀가 주고 간 것이라 하는데, 어쩐 까닭에 신 한 짝이 없을까?” 하며 모든 손들의 공론이 분분한데, 이때 마침 관가에서 **차사**가 나와 동리를 돌아다니며,

“이 동리에 신 한 짝을 잃은 사람이 있거든 이리 와서 말하고 찾아가라.”

하고 외치면서 바로 콩쥐의 외갓집 문전에 이르더니, 잔치에 모인 여러 손들께까지 일일이 그 신을 신겨 보이더라.

해석 사람들은 그동안의 고생했던 이야기를 전해 들으며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하였다. 콩쥐가 고생이 심했다는 이야기도 하며, 아버지에게 돌도 없는 효녀라고 칭찬도 하며, 고생하는 콩쥐를 알아 주지 못하는 아버지라며 비난하기도 한다. 그러다가 비현실적인 일을 언급하면서 콩쥐가 귀하게 될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때, 관가에서 나온 차사가 마을을 돌아다니며 신 한 짝의 주인을 찾고 있다고 말하며, 일일이 신을 신겨 확인하였다.

[요약 : 콩쥐의 어려움을 이해하는 사람들과 신 한 짝의 주인을 찾으러 나온 차사]

이때 **배 씨**는 속으로 생각하되,

‘저 신 짝은 분명히 콩쥐년이 잃어버린 것인데, 그 옷과 한가지로 신발도 **진녀**가 내려 와 주고 간 것이 틀림없은즉, 조년에게 무슨 별다른 일이 있을 것이오. 또한 관가에서 저렇듯이 신 임자를 찾으니 필시 상을 후히 내릴 것이라.’

해석 배 씨는 악독한 사람이다. 콩쥐가 잃어버린 것을 알고 찾아 줄 생각은 하지 않고 크게 상을 받을까봐 걱정하고 있다.

[요약 : 콩쥐를 질투하는 배 씨의 모습이 나타남]

- 작자 미상, 「콩쥐팍쥐전」

* 벽제(辟除) 소리 : 지위가 높은 사람이 행차할 때, 하급 관리들이 잡인의 통행을 금하던 소리.

* 서기(瑞氣) : 상서로운 기운.

* 하리(下吏) : 서리(胥吏). 관아에 속하여 말단 행정 실무에 종사하던 구실아치.

* 삼모은행 : 모가 나 있는 은행 열매를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짐.

* 공궤하여 : 음식을 드리어.

오니 왕배는 곧 자라라, 오래 묵은 자라를 구하여 쓰면 기운이 자연 회복할 것이요, 그 다음에 소토의 간을 쓰면 병세 며칠 안으로 나으리다.”

왕이 이때 토끼 말이라 하면 사슴을 말이라 해도 믿는지라. 즉시 명령을 내리되,
“세상에 나갔던 별주부 오래 묵었으니 법을 좇아 잡아들이라.”

하니 현의 도둑 거북이 아뢰기를,

“옛 말씀에 ‘토끼를 다 잡으면 사냥개를 삶아 먹고 높이 뜬 새 없어지면 좋은 활이 숨는다.’ 하였사오니 선생 말씀이 옳사오니 주부는 만리타국의 정성을 다하여 공을 이루고 왔삽거늘 제후로 봉하기는 고사하고 죽이는 것은 불가사문어인국(不可使聞於隣國)*이라. 특별히 권도(權道)를 좇아 암자라로 대용하심을 바라나이다.”

왕 왈,

“윤허하노라.”

하시니라.

이때 별주부 천지 망극하여 집에 돌아와서 부부 서로 손을 잡고 통곡하다가 문득 생각하여 왈,

“내 일시 경솔한 말로 음해를 만나 무죄한 부인을 이 지경을 당하게 하였거니와 천 리를 함께 온 정이 적지 아니하고 제 마음이 악독하여 고집스럽지 않으니 우리 정성을 다하여 빌면 다시 측은히 생각하여 구해 주리라.”

하고, 즉시 별당을 깨끗이 치우고 잔치를 배설하여 토끼를 정으로 청하여 상좌에 앉히고 별주부 내외 당하에 꿇어 백배 애걸하는 말이,

“오늘날 우리 두 사람 목숨이 선생께 달렸으니 넓으신 도량으로 짐작하여 잔명을 구하여 주옵소서.”

토끼 수염을 만지작거리며 웃어 왈,

“네 당초에 날 죽을 곳으로 유인함도 마음에 고이하거늘 하물며 없는 간을 있다 하여 기어이 죽이려 함은 무슨 일이며, 위태한 때에 이르러 애걸하는 것은 나를 조롱함이나?”

- 작자 미상, 「토끼전」

* 불가사문어인국 : 이웃 나라에 알려져서는 안 됨.

- S :
- BL :
- E :
- R :
- 관계 :
- 개념어 :

1. 언어유희를 통해 ‘자라’의 무서움을 드러내고 있다. (○, ×)
2. ‘자라’의 말에서 음보가 규칙적으로 사용되어 리듬감이 나타난다. (○, ×)
3. ‘호랑이’는 위험에서 빠져나와 자화자찬하며 안도하고 있다. (○, ×)
4. 인물이 자신의 삶을 회상하며 성찰하고 있다. (○, ×)
5. ‘토끼’에 대한 왕의 신뢰가 없었다면 암자라가 위기에 처하지 않았을 것이다. (○, ×)
6. 상징적인 사물을 통해 인물이 처한 상황과 심리를 보여줌으로써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 ×)
7. 서술자가 인물에 대해 거리를 두며 논평하는 방식으로 서술하고 있다. (○, ×)

1. ○, 2. ○, 3. ○, 4. ×, 5. ○, 6. ×, 7. ×

[소설해석] 4) 토끼전 - 작자 미상

자라가 기막혀 우는 말이,

“못 보겠네, 못 보겠네, 병든 용왕 못 보겠네. 나의 충성 부족던가, 나의 정성 부족던가? 객사 신세 자라 팔

반복적 표현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드러냄

자, 이 아니 불쌍한가? 명천이 감동하와 백호를 죽여 주오, 애고애고 설운지고.”

이렇듯이 슬피 우니 호랑이 듣고,

“이놈, 무슨 내게 해로운 소리만 하느냐?”

자라 생각하되,

‘왕명을 받들어 만 리 밖에 나와 이 지경을 당하니 일사(一死)면 도무사(都無死)라. 무이불식(無以不食)이

한번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 먹지 못할 것이 없느니라.

라, 먹지 않는 것 없이 몽땅 먹는다 하니 내 한번 고기 값이나 하리라.’

하고 모진 마음을 굳게 먹고,

해석 자라는 지상에 올라왔다가 변을 당한다. 호랑이가 자라를 잡아 먹으려고 하는 것이다. 자라는 슬피 울면서 병든 용왕님을 걱정하며 객사를 당하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다. 그러다가 한 번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고 생각하며, 호랑이가 몽땅 먹는다고 하니 한번 고기 값이나 하자라고 마음을 굳게 먹는다. 즉, 호랑이에게 대항하겠다는 의미이다.

[요약 : 위험에 처한 자라의 모습이 나타남]

“어따, 내가 내 근본을 알려느냐?”

하며 호랑이 앞턱을 냅다 물고 매어 달리니, 호랑이가,

“애고, 놓아. 아니 먹으마.”

자라 놓고 나왔으며 움츠렸던 목을 길게 빼어 염려 없이 기세를 보이니, 호랑이 보더니,

“이크, 장사 갑주 속의 방망이 총 나온다.”

자라를 뜻함. 자라에게 무서움을 느낌

하며 저만치 물러났으니, 자라 호랑이 질려 하는 김새를 알고,

“그대가 내 근본을 자세히 아는가? 나는 수국충신 간의대부겸 시랑 별주부, 별나리라 하네.”

자라 스스로 자신의 근본을 높이 말함

호랑이 무식하여 자라 별자 못 알아듣고 무수히 새겨,

“별나리, 별나리, 그저 나리도 무섭다 하되 별나리 더 무섭다. 생긴 모양보다는 직품은 높고 찬란한데, 그러

언어유희가 나타나는 대목임

면 목은 어찌 그리 되었으며, 이곳에는 어찌 나왔는가?”

해석 자라는 죽을 각오로 호랑이에게 달려들었다. 앞턱을 냅다 물자 호랑이가 겁을 먹게 되자 자라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자신의 위대함을 내보이고 있다. 호랑이는 무식해서 자라의 말을 다 이해하지 못한 채 ‘나리가 무섭다’는 말만 이해하여 자라가 무섭다고 착각하고 있다. 그러다가 자라의 목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경위를 묻고 있다.

[요약 : 용감한 자라의 모습과 겁에 질린 호랑이의 모습이 나타남]

자라 대답하되,

“이곳 나오고 목이 이리 된 근본을 알려느냐?”

“어디 좀 알아보세.”

“우리 수궁이 퇴락하여 새로 다시 지은 후에 천여 개 기와를 내 손으로 이어갈 제, 추녀 끝에 돌아가다 한

발길 미끄러져 공중에서 뚝 떨어져 빙빙 돌아 내려오다 목으로 짚꼭 내려 박혀 목이 이리 되었기로 명의더러 물어보니 호랑이 쓸개가 약이 된다 하기에 벽력 장군 앞세우고 **도로랑** 귀신 잡아타고 호랑이 사냥 나왔으니 **거짓말로 위협에서 벗어나는 장면임** 계가 호랑이면 쓸개 한 보 못 주겠다. **도로랑** 귀신 게 있느냐? 어서 급히 빨리 나와 용천검 드는 칼로 이 호랑이 배 갈라라, 도로랑!”

하고 달려드니 **호랑이** 깜짝 놀라 물똥을 와락 싸고, **초나라 노랫소리에 놀란 폐왕 포위 뚫고 남쪽으로 달** 아나듯, 적벽강 불 싸움에 폐군장 위왕 조조 정옥 따라 도망하듯, 북풍에 구름 단듯, 편전살 달아나듯, **왜물 호랑이가 도망가는 모습을 여러 고사에서 나오는 장면에 빗대어 나타냄** **조총 철환 단듯, 녹수를 얼른 건너 동쪽 숲을 헤치면서 쭈루쭈루 달아나 만첩청산 바위틈에 혼자 앉아 장담하** 고 하는 말이,

“내 재주 아니런들 도로랑 귀신 피할손가? 하마터면 죽을 뻔하였구나.”

해석 자라는 목숨을 건져야 하기 때문에 거짓으로 자신의 목이 길어진 경위를 말하고 있다. 특히나 ‘호랑이 쓸개가 약이 된다’는 거짓말을 하면서 호랑이를 위협하는데 호랑이는 이 말을 듣고 겁을 먹은 채 달아나게 되었다. 이때 호랑이 도망가는 모습을 실감나게 보여주기 위하여 옛 이야기에 나오는 도망가는 장면을 나열하였다는 점이 특징이다. 하나 더, 호랑이는 자신의 재주가 뛰어났기 때문에 ‘도로랑 귀신’을 피했다며 자화자찬하는 모습도 나타난다.

[요약 : 겁을 먹은 호랑이가 도망가는 모습이 나타남]

<중략>

한창 이리 춤을 출 제, **대장 범치 토끼** 옆에 섰다가,
 “이크, 토끼 뱃속에 간이 출랑출랑하는구나.”
 토끼 깜짝 놀라,
 ‘어떤 게 간이라고? 뱃속에 물똥이 들어 출랑거리는 걸 간이라 하겠다. 아뿔싸, 김세를 보아 떠나라고 하였거니 즉시 가는 것만 못할지고.’
 이리할 제 **별주부** 잔치에 참여하였다가 눈을 부릅떠 **토끼**를 보며 가만히 꾸짖어 왈,
 “내 듣기에도 출랑출랑하는 것이 분명한 간인 듯하거든 네 저러한 피로 우리 대왕을 속이려 하느냐?”
토끼 마음에 분하여 잔치가 끝난 후 왕께 아뢰어,
 “**소토** 세상에서 약간 의서를 보았거니와 **음허화동(陰虛火動)**으로 난 병에 원기 회복하기는 왕배탕이 제일 **몸에 음기(陰氣)가 부족하여 열과 땀이 심하고 식욕이 줄며 기력이 쇠약하여지는 현상** 좋다 하오니 왕배는 곧 자라라, 오래 묵은 **자라**를 구하여 쓰면 기운이 자연 회복할 것이요, 그 다음에 소토의 간을 쓰면 병세 며칠 안으로 나으리다.”

해석 대장인 범치가 토끼 옆에 있다가 토끼 뱃속에 간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다. 토끼는 깜짝 놀라서 이를 어찌할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때 자라도 뻔히 있는 간을 없다고 말하는 토끼에게 힐난을 하였다. 이 말을 들은 토끼는 화가 나서 용왕에게 자라를 언급하며 왕배탕을 먹은 후에 자신의 간을 쓰면 용왕의 병세가 호전될 거라고 말하고 있다. 피를 쓰는 토끼의 모습이 나타나는 장면이다.

[요약 : 피를 쓰는 토끼의 모습이 나타남]

왕이 이때 토끼 말이라 하면 사슴을 말이라 해도 믿는지라. 즉시 명령을 내리되,
“세상에 나갔던 별주부 오래 묵었으니 법을 좇아 잡아들이라.”

하니 현의 도둑 거북이 아뢰기를,

“옛 말씀에 ‘토끼를 다 잡으면 사냥개를 삶아 먹고 높이 뜬 새 없어지면 좋은 활이 숨는다.’ 하였사오니 선

옛 성현의 말씀을 인용, 토사구팽

생 말씀이 옳사오니 주부는 만리타국의 정성을 다하여 공을 이루고 왔삽거늘 제후로 봉하기는 고사하고 죽이
는 것은 불가사문어인국(不可使聞於隣國)*이라. 특별히 권도(權道)를 좇아 암자리로 대용하심을 바라나이다.”

왕 왈,

“윤허하노라.”

하시니라.

해석 왕은 토끼가 사슴보고 말이라고 해도 믿을 만큼 토끼에 대한 신뢰가 대단하다. 별주부는 왕의 명령에 따
라 꼼짝없이 용왕의 약이 될 상황인 것이다. 이때, 현의 도둑인 거북이가 별주부는 공이 많기 때문에 이와 같
은 사실이 이웃나라에 알려지면 안 된다고 만류하고 있다. 따라서 자라가 아닌 암자라로 하는 것이 낫다며 권
유하고 있다.

[요약 : 목숨이 위태한 자라의 상황이 나타남]

이때 별주부 천지 망극하여 집에 돌아와서 부부 서로 손을 잡고 통곡하다가 문득 생각하여 왈,

“내 일시 경솔한 말로 음해를 만나 무죄한 부인을 이 지경을 당하게 하였거니와 천 리를 함께 온 정이 적
지 아니하고 제 마음이 악독하여 고집스럽지 않으니 우리 정성을 다하여 빌면 다시 측은히 생각하여 구해 주
리라.”

하고, 즉시 별당을 깨끗이 치우고 잔치를 배설하여 토끼를 정으로 청하여 상좌에 앉히고 별주부 내외 당하

에 꿇어 백배 애걸하는 말이,

애걸복걸

“오늘날 우리 두 사람 목숨이 선생께 달렸으니 넓은 도량으로 짐작하여 잔명을 구하여 주옵소서.”

토끼 수염을 만지작거리며 웃어 왈,

“네 당초에 날 죽을 곳으로 유인함도 마음에 고이하거늘 하물며 없는 간을 있다 하여 기어이 죽이려 함은
무슨 일이며, 위태한 때에 이르러 애걸하는 것은 나를 조롱함이나?”

해석 자라는 용왕의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다. 후회를 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지만 정성을 다하여 토끼
에게 빌면 측은히 생각해 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별당을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토끼를 맞이하였는데 그들
의 예상과 달리 자라의 부탁을 거절하였다.

[요약 : 자라의 부탁을 거절하는 토끼의 모습이 나타남]

- 작자 미상, 「토끼전」

* 불가사문어인국 : 이웃 나라에 알려져서는 안 됨.

5) 주몽 신화 - 작자 미상

고구려의 시조 동명성왕은 성이 고씨이고 이름이 주몽이다.

앞서 부여왕 해부루가 늙도록 아들이 없어 산천에 제사를 지내 아들 낳기를 기원하였다. 어느 날 그가 몰던 말이 곤연에 이르렀는데, 말이 그곳의 큰 돌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 임금은 이상하게 여겨 사람을 시켜 그 돌을 굴려 보게 하니, 금빛 개구리 모양의 어린아이가 있었다. 임금이 기뻐하며 말하였다.

“이 아이가 바로 하늘이 나에게 주신 아들이다!”

라고 하며 거두어 길러 이름을 금와라고 하고, 아이가 장성하자 태자로 삼았다.

훗날 재상인 아란불이 말하였다.

“어느 날 하느님이 내게 내려와 말하기를, ‘장차 내 자손에게 이곳에 나라를 세우게 할 것이니 너희는 피하라. 동쪽 바닷가에 가섭원이라는 땅이 있는데, 토양이 기름져서 오탁이 잘 자라니 도움을 정할 만하다.’라고 하였습니다.”

아란불이 마침내 임금에게 권하여 그곳으로 도움을 옮기게 하고, 나라 이름을 동부여라고 하였다. 그 옛 도움지에는 어디에서 왔는지 알 수 없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칭 천제의 아들 해모수라고 하면서 그곳에 도움을 정하였다.

해부루가 죽자 금와가 왕위를 이었다. 이때에 금와는 태백산 남쪽 우발수에서 한 여자를 발견하고, 그 여자의 내력에 대해 물었다. 그 여자가 말하였다.

“저는 하백의 딸이고 이름은 유화입니다. 여러 동생들과 함께 나가 놀고 있었는데, 때마침 한 남자가 자칭 천제의 아들 해모수라 하면서 저를 웅신산 아래 압록강가에 있는 집으로 유인하였습니다. 저의 부모는 제가 중매도 없이 남자를 좇았다고 꾸짖고, 마침내 우발수에서 귀양살이를 하게 하였습니다.”

금와는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녀를 방 안에 가두었다. 그녀에게 햇빛이 비추었고, 그녀가 몸을 당겨 피하면 햇빛이 또 따라와서 비추었다. 이로 인해 임신을 하여 다섯 되쯤 되는 크기의 알 하나를 낳았다. 임금은 그 알을 버려 개와 돼지에게 주었으나 모두 먹지 않았다. 또다시 길 가운데에 버렸으나 소나 말이 피하고 밟지 않았다. 나중에는 들에 버렸으나 새가 날개로 그것을 덮어 주었다.

임금은 그것을 쪼개려고 하였으나 깨뜨릴 수 없어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었다. 그 어머니가 그것을 감싸서 따뜻한 곳에 두었더니 한 사내아이가 껍질을 깨뜨리고 나왔다. 그 아이는 골격과 외모가 빼어나고 기이하였고, 나이가 겨우 일곱 살이었을 때 이미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성숙하였다. 손수 활과 화살을 만들었고, 쏘기만 하면 백발백중이었다. 부여의 말로 활을 잘 쏘는 사람을 주몽이라 하였으므로 이를 아이의 이름으로 삼았다고 한다.

금와에게는 일곱 명의 아들이 있었다. 그들은 항상 주몽과 함께 놀았는데 그들의 재주가 모두 주몽을 따르지 못하였다. 맏아들 대소가 임금에게 말하였다.

“주몽은 사람이 낳지 않았고 그 사람됨이 용맹스러우니 만약 일찍 처치하지 않으면 후환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바라건대 없애 버리십시오!”

그러나 임금은 듣지 않고 주몽에게 말을 기르게 하였다. 주몽은 여러 말 중에서 빠르게 달리는 말을 알아내어 먹이를 적게 주어 마르게 하고, 둔한 말은 잘 먹여 살찌게 하였다. 임금은 살찐 말을 자신이 타고 마른 말을 주몽에게 주었다. 후에 들판에서 사냥할 때 주몽이 활을 잘 쏘기 때문에 화살을 적게 주었으나 주몽은 짐승을 훨씬 더 많이 잡았다. 왕자와 여러 신하가 또 주몽을 죽이려고 모의하자, 주몽의 어머니가 그들의 계략을 몰래 알아내어 주몽에게 말하였다.

“나라 사람들이 장차 너를 죽이려 할 것이다. 너의 재주와 지략으로 어디를 간들 살지 못하겠느냐? 여기에서 지체하여 머물다가 옥을 당하느니 멀리 가서 뜻을 이루는 것이 나을 것이다.”

주몽은 오이, 마리, 험보 세 사람과 벗이 되어 달아났다. 엄시수*에 이르러 강을 건너려 하였으나 다리가 없어 따라오는 병사들에게 잡힐까 두려워하였다. 주몽이 강을 향해 말하였다.

“나는 천제의 아들이요, 하백의 외손이다. 지금 도망가는데 뒤쫓는 자들이 다가오니 어찌해야 하는가?”

이에 물고기와 자라가 떠올라 다리를 만들어 주어 주몽은 건널 수 있었다. 물고기와 자라가 곧 흩어져 버려서 뒤쫓던 기병들은 건널 수 없었다.

<중략>

졸본천에 이르러 토양이 기름지고 아름다우며, 산하가 험하고 견고한 것을 보고 마침내 도읍으로 정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궁실을 지을 겨를이 없었으므로 다만 비류수 가에 초막을 짓고 살았다. 나라 이름을 고구려라 하고, 고(高)를 성씨로 삼았다.

- 작자 미상, 「주몽 신화」 (출전 : 『삼국사기』)

* 엄시수 : 지금의 압록강 동북쪽에 위치한 강. 이규보의 「동명왕편」에는 '개사수'라고 나옴.

- S :
- BL :
- E :
- R :
- 관계 :
- 개념어 :

1. 신성성을 통해 인물이 고귀한 혈통임을 드러내고 있다. (○, ×)
2. '왕자들'은 능력이 출중한 '주몽'을 시기하였다. (○, ×)
3. '해부루'와 '금와'는 신이한 상황에 대하여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 (○, ×)
4. '주몽'은 '왕자들'의 계략을 먼저 눈치 채고 떠날 계획을 세웠다. (○, ×)
5. 위기 상황마다 '주몽'을 돕는 조력자가 없었더라면 나라를 세울 수 없었을 것이다. (○, ×)
6. 과거 장면을 삽입하여 인물들 간의 관계를 드러내고 있다. (○, ×)

1. ○, 2. ○, 3. ○, 4. ×, 5. ○, 6. ×

[소설 해석] 5) 주몽 신화 - 작자 미상

고구려의 시조 **동명성왕**은 성이 고씨이고 이름이 주몽이다.

고구려의 시조에 대하여 미리 언급함

앞서 **부여왕 해부루**가 늙도록 아들이 없어 산천에 제사를 지내 아들 낳기를 기원하였다. 어느 날 그가 물던 말이 곤연에 이르렀는데, 말이 그곳의 큰 돌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 임금은 이상하게 여겨 사람을 시켜 그 돌을 굴러 보게 하니, **금빛 개구리 모양의 어린아이**가 있었다. 임금이 기뻐하며 말하였다.

신비스러운 탄생

“이 아이가 바로 하늘이 나에게 주신 아들이다!”

라고 하며 거두어 길러 이름을 **금와**라고 하고, 아이가 장성하자 태자로 삼았다.

해석 부여왕인 해부루는 오랫동안 아들이 없어서 제사를 지내면서 아들 낳기를 소망하였다. 그러다가 말이 큰 돌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기이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해부루는 이를 이상하게 여겨 돌을 굴러 보니 그곳에 어린아이가 있었다. 해부루는 기뻐하며 이 아이를 금와라 이름을 지어주고 태자로 삼았다.

[요약 : 신비하게 태어난 금와]

훗날 재상인 **아란불**이 말하였다.

“어느 날 하늘님이 내게 내려와 말하기를, ‘장차 내 자손에게 이곳에 나라를 세우게 할 것이니 너희는 피하라. 동쪽 바닷가에 **가섭원**이라는 땅이 있는데, 토양이 기름져서 옥곡이 잘 자라니 도움을 정할 만하다.’라고 하였습니다.”

아란불이 마침내 임금에게 권하여 그곳으로 도움을 옮기게 하고, 나라 이름을 **동부여**라고 하였다. 그 옛 도읍지에는 어디에서 왔는지 알 수 없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칭 **천제의 아들 해모수**라고 하면서 그곳에 도움을 **신성한 의미를 부여함**정하였다.

해석 훗날, 재상인 아란불이 하늘님이 자신에게 ‘가섭원’이란 땅이 도움으로 적당한 말을 전했다고 해부루에게 말하며 이를 권하였다. 해부루는 도움을 옮기고 나라 이름을 ‘동부여’라고 정하였다. 이 도움지가 어디에서 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천제의 아들 해모수’가 아닐까 생각하였다.

[요약 : 동부여로 도움을 옮김]

해부루가 죽자 **금와**가 왕위를 이었다. 이때에 **금와**는 태백산 남쪽 우발수에서 한 **여자**를 발견하고, 그 여자 **요약적 제시**의 내력에 대해 물었다. 그 여자가 말하였다.

“저는 **하백의 딸**이고 이름은 **유화**입니다. 여러 동생들과 함께 나가 놀고 있었는데, 때마침 한 남자가 자칭 **천제의 아들 해모수**라 하면서 저를 웅신산 아래 압록강가에 있는 집으로 유인하였습니다. 저의 부모는 제가 중매도 없이 남자를 좇았다고 꾸짖고, 마침내 우발수에서 귀양살이를 하게 하였습니다.”

금와는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녀를 방 안에 가두었다. 그녀에게 햇빛이 비추었고, 그녀가 몸을 당겨 피하면 **신비스러운 일이 일어남**

햇빛이 또 따라와서 비추었다. 이로 인해 임신을 하여 다섯 되쯤 되는 크기의 알 하나를 낳았다. 임금은 그 **고주몽의 신비스러운 탄생**

알을 버려 개와 돼지에게 주었으나 모두 먹지 않았다. 또다시 길 가운데에 버렸으나 소나 말이 피하고 밟지

않았다. 나중에는 들에 버렸으나 새가 날개로 그것을 덮어 주었다.

임금은 그것을 쪼개려고 하였으나 깨뜨릴 수 없어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었다. 그 어머니가 그것을 감싸서 따뜻한 곳에 두었더니 한 **사내아이**가 껍질을 깨뜨리고 나왔다. 그 아이는 골격과 외모가 빼어나고 기이하였고, 나이가 겨우 일곱 살이었을 때 이미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성숙하였다. 손수 활과 화살을 만들었고, 쏘기 **뛰어난 외모와 그에 못지않은 특출난 실력**만 하면 백발백중이었다. 부여의 말로 활을 잘 쏘는 사람을 **주몽**이라 하였으므로 이를 아이의 이름으로 삼았다고 한다.

해석 금와가 왕위를 얻은 후 태백산에서 한 여자를 발견하는데, 주몽의 어머니가 될 사람이다. 유화는 동생들과 놀러 나왔다가 천제의 아들 해모수를 따라 갔다가 모르는 남자를 쫓아갔다는 이유로 귀양 오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금와는 이를 이상하게 여기고 데려왔다. 이후 유화에게 신비스러운 일이 벌어지는데, 햇빛으로 인해 임신을 하게 되고 알을 하나 낳았다. 금와는 알을 버리려고 애썼지만 신기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고 결국 깨뜨릴 수 없어서 유화에게 돌려준다. 유화는 정성껏 돌보았는데 그 알에서 사내아이가 태어났다. 바로 고주몽이다. 아버지는 천제의 아들 해모수이고 어머니는 하백의 딸이다. 이를 통해 고주몽이 귀한 사람이란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출신에 걸맞게 능력 역시 뛰어나다.

[요약 : 신비하게 태어난 고주몽]

금와에게는 일곱 명의 아들이 있었다. 그들은 항상 주몽과 함께 놀았는데 그들의 재주가 모두 주몽을 따르지 못하였다. **만아들 대소**가 임금에게 말하였다.

“**주몽은 사람이 낳지 않았고 그 사람됨이 용맹스러우니 만약 일찍 처치하지 않으면 후환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고주몽의 실력을 두려워하는 만아들 대소의 질투가 나타남**니다. 바라건대 없애 버리십시오!”

그러나 **임금**은 듣지 않고 주몽에게 말을 기르게 하였다. **주몽**은 여러 말 중에서 **빠르게 달리는 말을 알아**내어 먹이를 적게 주어 마르게 하고, 둔한 말은 잘 먹여 살찌게 하였다. **임금**은 살찐 말을 자신이 타고 마른 **좋은 말을 여위게 하여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한 계책(뛰어난 지략)**

말을 **주몽**에게 주었다. 후에 들판에서 사냥할 때 **주몽이 활을 잘 쏘기 때문에 화살을 적게 주었으나 주몽은** **뛰어난 능력**

짐승을 훨씬 더 많이 잡았다. **왕자와 여러 신하**가 또 주몽을 죽이려고 모의하자, **주몽의 어머니**가 그들의 계략을 몰래 알아내어 주몽에게 말하였다.

“나라 사람들이 장차 너를 죽이려 할 것이다. 너의 재주와 지략으로 어디를 간들 살지 못하겠느냐? 여기에서 지체하여 머물다가 옥을 당하느니 멀리 가서 뜻을 이루는 것이 나을 것이다.”

주몽은 **오이, 마리, 헝보** 세 사람과 벗이 되어 달아났다. **염지수***에 이르러 강을 건너려 하였으나 다리가 없어 따라오는 병사들에게 잡힐까 두려워하였다. **주몽**이 강을 향해 말하였다.

“나는 천제의 아들이요, 하백의 외손이다. 지금 도망가는데 뒤쫓는 자들이 다가오니 어찌해야 하는가?”
이에 물고기와 자라가 떠올라 다리를 만들어 주어 주몽은 건널 수 있었다. 물고기와 자라가 곧 흩어져 버

비현실적인 일이 벌어짐. 하늘의 자손이라는 증거
러서 뒤쫓던 기병들은 건널 수 없었다.

해석 금와에게는 7명의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많다는 의미는 왕의 자리를 위한 다툼이 있을 수 있다는 뜻이다. 주몽은 그 중 가장 뛰어나다. 따라서 이들은 주몽을 시기하고 질투하기를 일삼았다. 맏아들은 대놓고 주몽을 없애달라고 말도 하는데 금와는 이를 듣지 않는다. 금와는 주몽에게 말을 기르게 하였고, 주몽은 자신이 좋은 말을 갖기 위하여 지략을 펼친다. 하지만 좋은 일은 오래 가지 못하였고 왕자들과 신하들은 또 다시 주몽을 죽이기 위해 모의를 한다. 이를 알게 된 유화는 주몽에게 나라를 떠나라고 권한다. 주몽은 유화의 말을 듣고 자신의 세 친구와 함께 달아났다. 주몽을 죽이기 위해 쫓아온 병사들이 있었지만, 물고기와 자라가 위기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었다.

[요약 : 위기에 처한 고주몽과 고주몽을 돕는 물고기와 자라]

<중략>

졸본천에 이르러 토양이 기름지고 아름다우며, 산하가 험하고 견고한 것을 보고 마침내 도읍으로 정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궁실을 지을 겨를이 없었으므로 다만 비류수 가에 초막을 짓고 살았다. 나라 이름을 **고구려**라 하고, 고(高)를 성씨로 삼았다.

해석 주몽은 졸본천에 이르러 여기를 도읍으로 정하였는데 아직 궁궐을 지을 겨를이 없어 초막을 짓고 살았다. 이곳이 후에 '고구려'가 된다.

[요약 : 고구려 건국]

- 작자 미상, 「주몽 신화」 (출전 : 『삼국사기』)

* 엄시수 : 지금의 압록강 동북쪽에 위치한 강. 이규보의 「동명왕편」에는 '개사수'라고 나옴.

6) 온달전 - 작자 미상

온달은 고구려 평강왕 때의 사람이다. 얼굴이 파리어 우습게 생겼지만 마음씨는 명량하였다. 집이 매우 가난하여 항상 밥을 빌어다 어머니를 봉양하였는데, 떨어진 옷과 헤어진 신으로 시정(市井) 간에 왕래하니, 그때 사람들이 지목하기를 바보 온달이라 하였다. 평강왕의 어린 딸이 울기를 잘하므로 왕이 희롱하여, “네가 항상 울어서 내 귀를 시끄럽게 하니 커서는 사대부의 아내가 될 수 없고 바보 온달(濫達)에게나 시집보내야 하겠다.”라고 매양 말하였다. 그런데 딸의 나이 이팔(16세)이 되자 상부(上部) 고씨(高氏)에게로 시집보내려 하니 공주가 대답하기를, “대왕께서 항상 ‘너는 반드시 온달의 아내가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무슨 까닭으로 전의 말씀을 고치시나이까? 필부(匹夫)도 식언을 하지 않으려 하거든 하물며 지존이 식언을 해서는 되겠습니까? 왕자(王者)는 희언(戲言)이 없어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 대왕의 명령은 잘못된 것이오니 소녀는 감히 받들지 못하겠습니다.” 하였다. 왕이 노하여 이르기를 “네가 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다면 정말 내 딸이 될 수 없다. 어찌 함께 있을 수 있으랴? 너는 네가 갈 데로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

이에 공주는 보물 팔찌 수십 개를 팔꿈치에 매고 궁궐을 나와 혼자 길을 가다가, 한 사람을 만나 온달의 집을 물어 그 집에 이르렀다. 맹인(盲人) 노모가 있음을 보고 앞으로 가까이 가서 절하고 그 아들이 있는 곳을 물으니, 노모가 대답하기를 “우리 아들은 가난하고 추하여 귀인(貴人)이 가까이할 인물이 못됩니다. 지금 그대의 냄새를 맡으니 향기가 이상하고, 손을 만지니 부드러움 풀숨과 같은즉 반드시 천하의 귀인이요, 누구의 속임수로 여기에 오게 되었소? 내 자식은 굶주림을 참지 못하여 산으로 느릅나무 껍질을 벗기러 간 지 오래인데 아직 돌아오지 않았소.” 하였다. 공주가 그 집에서 나와 걸어서 산 밑에 이르러 온달이 느릅나무 껍질을 지고 오는 것을 보고, 자신의 소회(所懷)를 말하니 온달이 성을 내며,

“이는 어린 여자의 행동할 바가 아니다. 반드시 사람이 아니라 여우나 귀신이다. 내 곁으로 오지 마라.”

하며 그만 돌아보지도 않고 갔다. 공주는 혼자 온달의 집으로 돌아와 사립문 아래서 자고, 이튿날 다시 들어가서 모자(母子)에게 자세한 것을 말하였는데, 온달은 우물쭈물하며 결정을 내리지 못하였다. 그 어머니가 말하기를 “내 자식은 지극히 누추하여 귀인의 배필이 될 수 없고, 내 집은 지극히 가난하여 귀인의 거처할 곳이 못 되요.” 하였다. 공주가 대답하기를 “옛사람의 말에, 한 말 곡식도 밧아 쥘 수 있고, 한 자 베도 꿰뚫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마음만 같다면 어찌 반드시 부귀한 후에야 함께 지낼 수 있겠습니까.” 하고, 이에 금팔찌를 팔아 전지(田地), 주택, 노비, 우마와 기물(器物) 등을 사니 용품이 다 갖추어졌다. 처음 말을 살 때에 공주는 온달에게 이르기를 “아예 시장 사람의 말을 사지 말고, 꼭 국마(國馬)를 택하되 병들고 파리어서 내다파는 것을 사오도록 하시오.” 하였다. 온달이 그 말대로 하였는데, 공주가 먹이기를 부지런히 하여 말이 날마다 살찌고 또 건강해졌다.

고구려에서는 항상 봄철 3월 3일이면 낙랑(樂浪) 언덕에 모여 전렵(田獵)*을 하고, 그날 잡은 산돼지·사슴으로 하늘과 산천신(山川神)에 제사를 지내는데, 그날이 되면 왕이 나가 사냥하고, 여러 신하들과 5부(部)의 병사들이 모두 따라 나섰다. 이에 온달도 기른 말을 타고 따라갔는데, 그 달리는 품이 언제나 남보다 앞에 서고 포획하는 짐승도 많아서, 그와 같은 사람이 없었다. 왕이 불러 그 성명을 물어보고 놀라며 또 이상히 여겼다. 이때 후주(後周)의 무제(武帝)가 군사를 보내어 요동(遼東)을 치니, 왕이 군사를 거느리고 나가 배산(拜山) 들에서 맞아 싸웠는데, 온달이 선봉장이 되어 날쌔게 싸워 수십여 명을 베니, 여러 군사가 승승분격(乘勝奮擊)하여 크게 이겼다. 공을 의논할 때에 온달을 제일로 삼지 않는 이가 없었다. 왕이 가탄(嘉歎)*하여, “이 사람은 나의 사위라.” 하고, 예를 갖추어 맞이하며 벼슬을 주어 대형(大兄)을 삼았다. 이로 해서 은총과 영화가 더욱 두터워지고, 위엄과 권세가 날로 성하였다.

양강왕이 즉위하자 온달이 아뢰기를, “신라가 우리 한북(漢北)의 땅을 빼앗아 군현(郡縣)을 삼았으니, 백성들이 통탄하여 일찍이 부모의 나라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원컨대 대왕께서는 우신(愚臣)*을 불초(不肖)*하다 하지 마시고 군사를 주신다면 한번 가서 반드시 우리 땅을 도로 찾아오겠습니다.” 하니 왕이 허락하였다. 떠날 때 맹세하기를 “조령과 죽령 이북의 땅을 우리에게 귀속시키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겠다.” 하고, 나가 신라 군사들과 아단성(阿旦城) 아래서 싸우다가 신라군의 유시(流矢)*에 맞아 넘어져서 죽었다. 장사(葬事)를 행하려 하였는데 영구(靈柩)가 움직이지 아니하였다. 공주가 와서 관을 어루만지면서, “사생(死生)이 이미 결정되었으니, 나와 함께 돌아갑시다.”라고 말하고

나서야 마침내 관이 움직여 장사지냈는데, 대왕이 듣고 비통해 하였다.

- 작자 미상, 「온달전」

- * 전렵 : 사냥.
- * 가탄 : 가상히 여기어 감탄함.
- * 우신 : 어리석은 신하. 신하가 임금을 상대하여 자기를 낮추어 이르는 말.
- * 불초 : 아버지를 닮지 않았다는 뜻으로, 못나고 어리석은 사람을 이르는 말.
- * 유시 : 날아다니는 화살.

- S :
- BL :
- E :
- R :
- 관계 :
- 개념어 :

1. 대화를 통해 인물의 성격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
2. ‘온달’은 사후에도 자신의 의지와 신념을 지키고 있다. (○, ×)
3. ‘공주’의 패물은 ‘온달’을 궁핍한 생활에서 벗어나게 해 주는 소재이다. (○, ×)
4. ‘온달’은 일부러 ‘공주’를 귀신으로 여겼다. (○, ×)
5. ‘왕’은 자신의 체면을 위하여 ‘온달’에게 벼슬을 내려 주었다. (○, ×)
6. 이질적인 이야기를 삽입하여 새로운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 ×)
7.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 ×)

1. ○, 2. ○, 3. ○, 4. ×, 5. ×, 6. ×, 7. ○

7) 공방전 - 임춘

공방(孔方)의 자(字)는 관지(貫之)*이니, 그 조상이 일찍이 수양산(首陽山)에 숨어 굴속에서 살았기에 세상에 쓰인 적이 없었다. 처음 황제(黃帝) 시절에 조금 쓰이기도 했으나 성질이 굳세어 세상일에 그리 잘 적응하지 못하였었다. 임금이 쇠붙이를 맡은 사람을 불러 보이니, 그가 한참 동안 들여다보고 말하기를,

“산과 들처럼 거센 성질이라 쓸 만하지는 못하오나, 만일 폐하가 만물을 조화하는 풀무와 망치 사이에 놀게 하여 때를 굽고 빛을 갈면 그 자질이 마땅히 점점 드러나리이다. 임금 된 이는 무엇이나 쓸모가 있게 하는 분이오니, 원컨대 폐하는 저 단단한 구리와 함께 내버리지 마옵소서.” 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세상에 그의 이름이 나타났다. 뒤에 난리를 피하여 강가의 숲화로 거리로 이사하여 거기서 놀리살게 되었다.

그의 아버지 천(泉)은 주(周)나라의 재상으로 나라의 세금 매기는 일을 맡았었다. 방의 위인이 밝은 등글고 안은 모나며, 때에 따라 그에 맞게 변하기를 잘하여 한(漢)나라에서 벼슬하여 홍로경(鴻臚卿)이 되었다. 그때에 오(吳)나라 왕 비(濞)가 교만하고 주체넘어 권세를 도맡아 부렸는데, 방이 그에게 붙어 많은 이익을 얻었다.

무제(武帝) 때에 천하의 경제가 궁핍하여 나라의 창고가 텅 비었으므로 위에서 걱정하여 방에게 부민후(富民侯)*라는 벼슬을 주어 그의 무리 염철승(鹽鐵丞)* 근(僮)과 함께 조정에 있었는데, 근이 매양 형님이라 하고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방의 성질이 욕심 많고 더러워 염치가 없었는데, 이제 재물과 씹쓸이를 도맡게 되니 본진과 이자의 경중을 저울질하기 좋아하였다. 나라를 편하게 하는 것이 반드시 질그릇이나 쇠그릇을 만드는 생산의 기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백성과 더불어 사소한 이익조차도 다투었다.

그런가 하면 물건 값을 낮추어 곡식을 천하게 만드는 대신 돈을 중하게 만들어 백성으로 하여금 근본인 농사를 버리고 끄트머리인 장사를 좇게 하여 농사를 방해했다. 임금께 아뢰는 사람들이 많이 상소하여 논했으나 위에서 듣지 않았다.

방은 또 재치 있게 권세와 부귀를 잘 섬겨 그쪽에 드나들며 권세를 부리는가 하면, 벼슬을 팔아 올리고 내침이 그 손바닥에 있으므로 벼슬아치들이 많이 절개를 굽혀 방을 섬겼다. 그리하여 곡식을 쌓고 뇌물을 거둔 문서와 증서가 산 같아 이루 셀 수가 없었다.

그는 사람을 접하고 인물을 대함에도 어질고 어리석음을 묻지 않고, 비록 저잣거리 사람이라도 재물만 많이 가진 자면 다 함께 사귀고 통하였다. 때로는 혹 거리의 못된 젊은이들과 어울려 바둑 두기와 투전하기를 일삼고 뒤섞이기 좋아하므로 그때 사람들이 말하기를,

“공방의 말 한마디는 그 무제가 황금 백 근만 하다.” 하였다.

원제(元帝)가 자리에 오르자 공우(貢禹)가 상서(上書)하여 아뢰기를,

“방이 오랫동안 힘든 일을 맡아보면서 농사의 근본을 알지 못하고 한갓 장사치의 이익만을 일으켜 나라를 쪼먹고 백성을 해하여 공사가 다 곤궁하며, 더구나 뇌물과 청탁이 낭자하고 버젓이 행해지니, 대저 짐을 짊어지고 또 타게 되면 도둑이 된다고 한 것은 옛날의 분명한 경계이니, 청컨대 그를 면직시켜 욕심 많고 더러운 자를 징계하옵소서.” 하였다.

그때에 집정자 중에는 경제 문제를 잘 아는 이가 있었다. 그는 변방을 막는 정책을 세우려 했다. 이에 방이 한 일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를 위해 말을 거들었다. 위에서 그 사립을 들어 방이 드디어 쫓겨나게 되었다.

<중략>

사신(史臣)이 말하기를,

“남의 신하가 되어 두 마음을 품고 큰 이익을 좇는 자를 어찌 충성된 사람이라 이르겠는가. 방이 올바른 법과 좋은 주인을 만나 정신을 모으고 마음을 도사려 정녕(丁寧) 한 약속을 손에 잡아 그다지 적지 않은 사랑을 받았으니, 마땅히 일으키고 해를 덜어 그 은우(恩遇)*를 갚을 것이거늘, 비(濞)를 도와 권세를 도맡아 부리고 이에 사사로운 당(黨)을 세웠으니, 충신은 경외(境外)의 사립이 없다는 것에 어그러진 자이다.” 하였다.

방이 죽자 그 남은 무리는 다시 남송에 쓰였다. 집정한 권신(權臣)들에게 붙어서 정당한 사람을 포함하는 것이었

다. 비록 길고 짧은 이치는 명명(冥冥)한 가운데 있는 것이지만, 만일 원제가 일찍부터 공우가 한 말을 받아들여서 이들을 일조에 모두 없애 버렸던들 이 같은 후환은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다만 이들을 억제하기만 해서 마침내 후세에 폐단을 남기고 말았다. 그러니 대체 실행보다 말이 앞서서 자는 언제나 미답지 못한 것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 임춘, 「공방전」

- * 관지 : '궤미(물건을 궤는 데 쓰는 끈이나 꼬챙이 따위. 또는 거기에 무엇을 꿰 것.)'를 뜻함.
- * 부민후 : 백성을 풍요롭게 하는 벼슬이라는 뜻.
- * 염철승 : 소금과 쇠를 담당하는 벼슬.
- * 은우 : 은혜로 대우함.

- S :
- BL :
- E :
- R :
- 관계 :
- 개념어 :

1. 가전체의 형식을 빌려 우의적으로 대상을 비판하고 있다. (○, ×)
2. 사건을 생동감 있게 서술하여 긴박감을 조성하고 있다. (○, ×)
3. 요약적 서술을 통해 인물의 내력을 드러내고 있다. (○, ×)
4. '공방'은 사람을 사궤에 있어 뒹뒹이를 묻곤 하였다. (○, ×)
5. '공우'는 '공방'의 행위를 비판하고 있다. (○, ×)
6. 서술자가 인물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

1. ○, 2. ×, 3. ○, 4. ×, 5. ○, 6. ○

8) 이생규장전 - 김시습

“저는 원래 귀족의 딸로서 어릴 때에 모훈(母訓)을 받아 수놓는 일과 침선에 열심이었고, 시서와 예의를 배워 단지 규중의 예법만 알고 그 외의 다른 일은 잘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당신이 복숭아꽃 핀 담 안을 엿보셨을 때 저는 스스로 벽해의 구슬을 드려 꽃 앞에서 한 번 웃고 평생의 가약을 맺었습니다. 또한 깊은 휘장 속에서 거둬 만날 때마다 정이 백 년을 넘쳤습니다. 여기까지 말을 하고 나니 슬프고 부끄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군요. 장차 백년해로의 낙을 누리려 하였는데 어찌 횡액(橫厄)을 만나 구렁에 넘어질 줄 알았겠습니까? 끝까지 이리 같은 놈들에게 정조를 잃지는 않았으나, 육체는 진흙탕에서 찢겼사옵니다. 절개는 중하고 목숨은 가벼워 해골은 들판에 던져졌으나, 혼백을 의탁할 곳이 없었습니다. 가만히 옛일을 생각하면 원통한들 어찌하겠습니까? 당신과 그날 깊은 산골짜기에서 하직한 뒤 저는 속절없이 짝 잃은 새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봄빛이 깊은 골짜기에 돌아와 저의 환신(還身)은 이승에 다시 태어나서 남은 인연을 맺어 옛날의 굳은 맹세를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려 하는데 당신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이생은 매우 기뻐하며 감사히 여겨 대답했다.

“그것이 원래 나의 소원이요.”

둘은 말을 주고받았다. 이생은 또 물었다.

“그래, 모든 가산은 어떻게 되었소?”

“예,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어떤 골짜기에다 묻어 두었습니다.”

“그럼 우리 두 아버지의 유골은 어찌 되었소?”

“하는 수 없이 어떤 곳에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야기를 마친 뒤 함께 취침하여 즐기니, 기쁜 정은 옛날과 조금도 다를 바 없었다.

이튿날 여인은 이생과 함께 옛날 살던 개령동을 찾아갔다. 거기에는 금은 몇 덩어리와 재물이 약간 있었다. 그들은 두 집 부모의 유골을 거두고 금은과 재물을 팔아서 각각 오관산 기슭에 합장하고는 나무를 세우고 제사를 드려 모든 예절을 다 마쳤다.

그 후 이생은 벼슬을 구하지 않고 아내와 함께 살게 되니, 피란 갔던 노복들도 찾아왔다. 이생은 이로부터 인간의 모든 일을 완전히 잊고서 친척의 길흉사와 귀한 손의 방문에도 문을 닫고 나가지 않았으며, 늘 아내와 함께 시를 지어 주고받으며 즐거이 세월을 보냈다.

어느덧 두서너 해가 지난 어느 날 저녁에 여인은 이생에게 말했다.

“세 번째나 가약을 맺었습니다마는, 세상일이 뜻대로 되지 않았으므로 즐거움도 다하기 전에 슬픈 이별이 갑자기 닥쳐왔습니다.” 하고는, 마침내 목메어 울었다. 이생은 깜짝 놀라면서 물었다.

“무슨 까닭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오?”

여인은 대답했다.

“저승길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낭군의 연분이 끊어지지 않았고 또 전생에 아무런 죄악도 없었으므로, 하늘님께서 이 몸을 환신시켜 잠시 낭군을 뵈어 시름을 풀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인간 세상에 머물러 있으면서 산 사람을 미혹할 수는 없습니다.”

하더니, 시비에게 명하여 술을 올리게 하고는 옥루춘곡에 맞추어 노래를 지어 부르면서 이생에게 술을 권했다.

도적 때 밀려와서 처참한 싸움터에
물죽음을 당하니 원앙도 짝 잃었네
여기저기 흩어진 해골 그 누가 묻어 주리
피투성이 그 유혼은 하소연도 할 곳 없네
슬프다 이내 몸은 무산 선녀 될 수 없고
깨진 거울 갈라지니 마음만 쓰라리네
이로부터 작별하면 둘이 모두 아득하니

저승과 이승 사이 소식조차 막히리라

노래 한 가락씩 부를 때마다 눈물에 목이 메어 거의 곡조를 이루지 못했다. 이생도 또한 슬픔을 건잡지 못했다. “나도 차라리 부인과 함께 황천으로 갔으면 하오. 어찌 무료히 홀로 여생을 보내겠소. 지난번에 난리를 겪고 난 후에 친척과 노복들이 각각 서로 흩어지고, 돌아가신 부모님의 유골이 들판에 버려져 있을 때, 부인이 아니었다더라면 누가 능히 장사를 지내 주었겠소. 옛사람의 말씀에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에는 예절로써 섬기고 돌아가신 후에도 예절로써 장사 지내야 한다 했는데, 이런 일을 모두 부인이 실천했소. 그것은 부인의 천성이 순효하고 인정이 두터운 때문이니 감격해 마지않았으며, 스스로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하였소. 부인은 이승에서 함께 오래 살다가 백 년 후에 같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어떻겠소?”

여인은 대답했다.

“낭군의 수명은 아직 남아 있으나, 저는 이미 저승의 명부에 이름이 실려 있으니 오래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굳이 인간 세상을 그리워해서 미련을 가진다면, 명부의 법에 위반됩니다. 그렇게 되면 죄가 저에게만 미칠 것이 아니라 낭군님께도 그 허물이 미칠 것입니다. 다만 저의 유골이 아직 그곳에 흩어져 있으니, 만약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유골을 거두어 비바람 맞지 않게 해 주십시오.”

두 사람은 서로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잠시 후에 여인은 말했다.

“낭군님, 부디 안녕히 계십시오.”

말을 마치자 점점 사라져서 마침내 종적을 감추었다. 이생은 아내가 말한 대로 그녀의 유골을 거두어 부모의 무덤 곁에 장사를 지내 주었다.

그 후 이생은 아내를 지극히 생각한 나머지 병이 나서 두서너 달 만에 그도 또한 세상을 떠났다.

이 사실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슬퍼하고 탄식하면서, 그들의 절개를 사모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 김시습, 「이생규장전」

- S :
- BL :
- E :
- R :
- 관계 :
- 개념어 :

1. ‘여인’은 현실과 거리를 둠으로써 주어진 운명을 초월하고자 하였다. (○, ×)
2.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 인물의 상황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
3. 이상과 현실을 대비함으로써 초월적인 세계를 지양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
4. ‘이생’은 환생한 ‘여인’을 위하여 입신양명하였다. (○, ×)
5. 인물들의 다양한 체험을 삽화 형식으로 나열하고 있다. (○, ×)
6. 생사를 초월한 순수한 남녀의 사랑을 그리고 있다. (○, ×)

1. ×, 2. ○, 3. ×, 4. ×, 5. ×, 6. ○

9) 홍길동전 - 허균

(가) 원래 이 짐승은 울동이란 짐승이니, 여러 해 산중에 있어 변화가 무궁한지라. 길동이 생각하되,
‘이 같은 것은 본 바 처음이라. 저것을 잡아 세상 사람에게 구경시키리라.’ 하고 몸을 감추어 활로 쏘니 그중 으뜸인 놈이 맞은지라. 소리를 지르거늘, 보니 그 짐승이 맞았는지라. 길동이 큰 나무에 의지하여 밤을 지내고 두루 더듬어 약을 캐더니, 문득 괴물 수삼십 명이 길동을 보고 놀라 문 왈,
“이곳에 아무라도 올라오지 못하거늘, 그대는 무삼 일로 이곳에 이르렀나뇨?”
길동이 답 왈,
“나는 조선 사람으로서 의술을 아옵더니, 이곳에 선약(仙藥)이 있다는 말을 듣고 찾아왔노라.”
한대, 그것이 듣고 대회하여 왈,
“두 번째 부인을 우리 대왕이 새로 정하고 지난밤에 잔치하여 즐기더니, 불행하여 하늘에서 날아온 화살을 맞아 불분사생(不分死生)하온지라. 그대 선약을 써 우리 대왕을 살려내시면 은혜를 갚아오리니, 한가지로 처소에 돌아가 상처를 보심이 어떠하시뇨?”
길동이 생각하되, ‘이놈이 내 살에 상한 놈이로다.’ 하고, 한가지로 들어가 보니, 채색한 집이 장대한 가운데 흉악한 요괴가 누웠다가 길동이 이름을 보고 몸을 겨우 일으키며 왈,
“제가 우연히 화살을 맞아 죽음에 이르렀더니, 오늘날 그대를 만남에 이는 하늘이 명의(名醫)를 지시하심이로다. 바라건대 재주를 아끼지 말라.” 하거늘, 길동이 속여 이르되,
“이 상처가 대단치 아니하니, 먼저 내치(內治)할 약을 쓰고 외치(外治)할 약을 바르면 쾌차하오리니 생각하여 하소서.”
그 요괴 곧이듣고 대회하는지라. 길동이 그중 독한 약을 내어 주며 일러 왈,
“이 약을 급히 갈아 쓰라.”
하니, 모든 요괴들이 기뻐하여 즉시 온수에 먹이니, 식경은 하여 그 요괴 배를 두드리고 눈을 실룩거리며 소리를 지르더니 두어 번 뛰놀다가 죽는지라. 모든 요괴 등이 이 모습을 보고 칼을 들고 왈,
“너 같은 흉적을 죽여 우리 대왕의 원수를 갚으리라.”
하고 일시에 달려드니, 길동이 홀로 당치 못하여 공중으로 솟으며 활로 무수히 쏘니, 모든 요괴가 아무리 조화가 있을들 어찌 길동의 신기한 술법을 당하리오. 한바탕 싸움에 모든 요괴를 다 죽이고 도로 그 집에 들어가니, 한 돌 문 속에 두 여자 있어 서로 죽으려 하거늘, 길동이 보고 또한 계집 요원가 하여 마저 죽이려 하니, 그 계집이 애걸 하거늘, 길동이 칼을 들고 들어가니, 그 계집이 울며 왈,
“첩 등은 요괴 아니요, 인간 사람으로서 이곳에 잡혀와 지금까지 벗어나지 못하옵더니, 천행으로 장군이 들어와 허다 요괴를 다 죽이고 첩 등의 목숨을 구하여 고향에 돌아가게 하옵시니, 은혜 백골이 진토가 되어도 다 갚지 못하리로소이다.”
하거늘, 길동이 생각하되 행여 백룡의 딸인가 하여 문득 보니 짐짓 화용월태* 경국지색*이라. 인하여 거주성명을 물으니, 하나는 백룡의 딸이요, 하나는 조철의 딸이라.

[중략 부분 줄거리] 두 여인과 혼인을 하고 돌아온 길동은 아버지의 죽음을 알고 조선으로 돌아가 유해를 모시고 와 장례를 치른다. 이후 율도국 왕이 무도하여 정사를 소홀히 하고 백성을 도탄에 빠지게 함을 알고 율도국을 정벌하기로 한다.

(나) “명일 오시에 율도왕을 가히 사로잡으리니 시각을 어기오지 말라. 명을 어기는 자는 참하리라.”
하고, 선봉 골돌통과 허만달을 불러 왈,
“너희 등은 일천 군을 거느려 양관 남쪽 소로로 가 매복하였다가 여차여차 하라.”
하고, 좌장군 이의경과 전장군 장길을 불러 왈,
“그대는 삼천 군을 거느려 산곡 왼쪽에 매복하였다가 여차여차 하라.”

하고, 후군장 정창, 정기, 정수를 불러 왈,

“너희 등은 일만 정병을 거느려 양관 오른쪽 소로에 매복하였다가 여차여차 하라.”

하니, 제장이 각각 청령하고 인군하여 가거늘, 이튿날 길동이 일지군을 거느려 진문을 열고 말을 타고 나오며 큰 소리로 왈,

“무도한 율도왕은 들어라. 그대 주색에 빠져 간언을 쓰지 아니하고 무죄한 백성을 살해하니 이는 걸주*의 치(治)라. 하늘이 어찌 무심하시리오? 이리므로 내 의병을 일으켜 이에 이르렀으니 빨리 나와 항복하여 성안의 백성을 구하라.”

왕이 대로하여 토산마를 타고 쌍검을 들어 길동과 싸우더니, 삼 합에 못 미쳐 길동이 거짓 패하여 달아나거늘, 율도왕이 따르더니 선봉장 골돌통이 왼쪽 수풀 가운데로서 쫓아 내닫거늘, 모골대 산골짜기를 보고 달아나거늘, 율도왕이 꾸짖고 급히 따라 양관을 나와 산골짜기로 들어가거늘, 율도국 제장이 크게 외쳐 왈,

“대왕은 따르지 마소서. 그곳이 산세 험악하니 반드시 간계가 있는가 하나이다.”

왕이 분노 왈,

“내 어찌 저를 두리오?”

하고, 말을 채쳐 따라 점점 깊은 데를 들어가니 길이 좁고 산천이 험악하거늘, 정히 주저하더니 문득 일성포향에 사면 북병이 내달아 크게 엄살하는지라.

왕이 대경하여 급히 퇴군하더니, 또 일지군이 내달아 길을 막으니 위수대장은 홍길동이라. 손에 장창을 들고 총이 마를 타고 큰 소리로 왈,

“율도왕은 단지 말라.”

하거늘, 왕이 길동을 봄에 분기가 크게 일어나 맞아 싸워 사십여 합에 승부를 가리지 못하더니, 골돌통이 군을 돌이켜 철통같이 싸고 치니, 징과 북 함성이 천지진동하더라. 왕이 마구 쳐서 죽이더니, 또 보고하되,

“적병이 본진에 불을 놓고 들이치나이다.”

왕이 듣고 싸울 마음이 없어 말을 돌이켜 달아나더니, 전면에 일진광풍이 일어나며 화광이 충천하거늘, 왕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왈,

“내 남을 경히 여겨 이런 화를 만났으니 누를 한하리오?”

말을 마치고 칼을 들어 스스로 목을 찌르더라.

- 허균, 「홍길동전」

* 화용월태(花容月態) : 아름다운 여인의 얼굴과 맵시를 이르는 말.

* 경국지색(傾國之色) : 임금이 혹하여 나라가 기울어져도 모를 정도의 미인이라는 뜻으로, 뛰어난게 아름다운 미인을 이르는 말.

* 걸주(桀紂) : 중국 하나라의 걸왕(桀王)과 은나라의 주왕(紂王)을 아울러 이르는 말. 천하의 폭군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S :
- BL :
- E :
- R :
- 관계 :
- 개념어 :

1. 주인공은 비범한 능력을 사용해 적을 물리쳤다. (○, ×)
2. 서술자가 개입하여 주관적인 판단을 드러내고 있다. (○, ×)

3. '율도왕'은 자신의 성격으로 인해 일을 그르치게 되었다. (○, ×)
4. '홍길동'은 백룡의 딸과 조철의 딸을 구하기 위해 요괴를 퇴치하였다. (○, ×)
5. 인물의 행동을 짧은 문장으로 서술하여 불안한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 ×)
6. 장창을 들고 싸우는 '홍길동'의 모습에서 율도국의 왕을 잡으려는 강인한 의지가 나타난다. (○, ×)
7. 친밀한 느낌을 주는 말투를 써서 서술자와 독자의 거리를 좁히고 있다. (○, ×)

1. ○, 2. ○, 3. ○, 4. ×, 5. ×, 6. ○, 7. ×

10) 위경천전 - 작자 미상

[앞부분 줄거리] 임진년 봄, 위경천은 동정호 유람을 나섰다가 소속방을 보고 한눈에 반해 인연을 맺는다. 위경천이 집으로 돌아간 뒤,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그리움으로 병이 든다. 사연을 알게 된 양가 부모가 두 사람을 혼인시키기로 한다.

여인(소속방)은 소식을 듣자 약을 쓰지 않고도 홀연 병이 나았다. 이로부터 양쪽 집안이 끊임없이 소식을 주고받았다. 드디어 약속한 날이 되어 혼례식이 거행되었다. 두 사람이 서로를 얻은 기쁨은 장식과 두난향의 만남*이나 배향과 운영의 만남*과도 견줄 수 없을 만큼 컸다. 부부가 된 두 사람이 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공경했으므로, 가깝고 먼 친척들 모두가 예의를 다해 이들을 대했다.

이해 8월, 왜군이 조선에 쳐들어왔다. 조선의 국왕은 수도를 버리고 멀리 신의주까지 피란을 와서 중국으로 끊임없이 사신을 보내 구원을 요청했다.

황제는 병사를 징집하는 격문을 보내고, 위생의 부친을 왜군을 징발하는 장군으로 임명하여 3만 병사를 거느리고 멀리 요양으로 가게 했다. 전쟁터는 사지인 데다가 멀리 동쪽 변방에 들어갔다 언제 돌아 올는지 알 수 없는 일이었다. 한편 위생의 부친은 그 막하에서 서기관의 임무를 수행할 만한 마땅한 사람을 구하기가 어려웠다. 그리하여 그는 즉각 위생에게 편지를 보내 함께 계문으로 가자고 했다.

위생은 부친의 편지를 읽고는 눈물을 흘리며 식음을 전폐한 채 마음을 잡지 못했다. 소속방이 문득 슬픔을 억누르고 사리를 따져 가며 위생을 타일렀다.

“듣건대 남자는 세상에 태어나 붉은 활을 들고 백마를 타고 싸움터에 나아가 죽음을 무릅쓰고 싸울 뜻을 가져야 하며, 철기(鐵騎)를 타고 병부를 쫓아 차고는 마침내 큰 무공을 세워야 한다고 하더군요. 하물며 천하의 군센 병사를 모아 변방의 흉악한 무리를 섬멸하고자 하는 지금, 산을 누를 듯한 기세는 있으되 땅이 무너질 듯한 근심은 없으니, 훌륭한 공적을 세우고자 하신다면 지금이 바로 그 기회입니다. 어찌 오활*한 선비의 모습을 보이며 끝내 서재를 지키고 앉아 계시려 합니까? 더구나 지금 아버님께서 변경 먼 곳에서 근심을 안고 계시건만, 아들 된 사람으로서 아버님의 괴로움을 어찌 모른 척할 수 있겠어요? 속히 돌아올 수 있을 테니 아버님의 뜻을 어기지 마세요.

다만 제 팔자가 기구해서 세상이 자꾸 어그러지더니, 좋은 인연을 맺자마자 슬픈 이별이 또 찾아오는군요. 인생이 얼마나 된다고 함께 기쁨을 누리던 날이 이리도 짧은지요? 이제 딸의 오동나무 잎이 지고 바닷가 기러기가 구슬피 울며 달빛이 섬돌을 비출 때 누가 제 피리 소리를 들어 주겠어요? 새하얀 벽에 벌레만 울고 원앙새의 꿈도 차갑게 식어 저는 다시 애태우며 망부석이 되리니, 오직 낭군께서 하루빨리 돌아오시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말을 마치자 술을 마련하여 안채에서 작별의 자리를 가졌다.

[중략 부분 줄거리] 위생은 부친의 행렬에 합류하나 마음이 극히 허전한 상태로 산을 넘고 물을 건너는 등 온갖 고생을 겪은 데다가, 제대로 먹고 자지도 못해 예전의 병이 다시 도지게 된다.

이러구러 몇 달이 지났다. 위생의 맥이 실날 같아 금방이라도 목숨이 끊어질 듯하자 부하 한 사람이 급히 장군에게 소식을 알렸다. 장군은 전투 계획을 뒤로 미루고 황급히 달려와 위생의 이마를 어루만지며 말했다.

“내 황제의 명을 받들어 천 리 길을 함께 왔지만, 부자간의 도리가 중하니 네 목숨을 꼭 구할 것이다. 너를 데리고 온 건 병약한 아버리를 도와 달라는 뜻이었는데, 늙은 아버지가 덕이 없어 네가 먼저 병이 들고 말았구나. 하늘 끝에 갈 한 자루 들고 선 나는 이제 누구를 의지해야 할지? 전쟁터에 나와 약을 쓸 겨를도 없었으니, 내 참담한 마음이야 너도 잘 알겠지. 고향 땅이 비록 멀지만 돌아갈 길이 험하지 않으니 배를 타고 하룻밤이면 강남에 도착할 수 있게다. 마음을 편히 먹고 조금도 근심하지 말거라.”

위생이 부친의 말을 듣고 고개를 드는데, 서글픔에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다. 마침내 장군의 손을 꼭 잡고 목메어 울며 이렇게 고하였다.

“소자의 남은 목숨은 재앙을 면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전쟁터에서 지병이 더욱 심해져 편작이 온다 해도 고치지

못하리니, 운명을 어찌겠습니까? 다만 마음에 걸리는 건 아버지께서 변방에 와 아직 교전 한 번 못 하신 채 자식의 죽음에 고통하며 상심하게 될 일입니다. 어려서는 재주가 없어 부모님께 영예를 끼치지 못했고, 커서는 부모님보다 먼저 세상을 떠서 평생 곁에서 모실 수 없게 되었으니, 이승에서나 저승에서나 제 죄는 용서받지 못할 것입니다. 저승에서도 이 원통함이 사라지지 않으리니, 어찌 제가 눈을 감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황량한 산에 떠도는 외로운 혼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바라옵건대 제 뼈를 고향 선산에 묻어 주십시오.”

위생은 말을 마치자마자 돌연 숨을 거두었다. 장군이 통곡하며 초상 준비를 서두르는 한편, 고향에서 장례를 치르고 선영(先塋) 곁에 묻도록 명하였다.

상여를 떠나보내는 날, 위생이 장군의 꿈에 나타나 이렇게 말했다.

“소씨 님 낳자와는 정을 다 나누지 못했습니다. 살아서는 함께 살지 못했지만, 죽어서는 한 무덤에 묻히고 싶습니다.”

그러고는 홀연 보이지 않았다. 장군이 놀라서 깨니 꿈이었다. 군막에 달이 지고 피리 소리와 북소리가 구슬프게 들려왔다.

- 작자 미상, 「위경천진」

* 장석과 두난향의 만남 : 후한 때 선녀 두난향이 동정호 부근에 살던 장석의 집에 내려와 부부의 인연을 맺었다는 고사.

* 배향과 운영의 만남 : 당나라 때 선비 배향이 운교 부인의 소개로 운영이라는 미인을 만났다는 고사.

* 오환 : 사리에 어둡고 세상 물정을 잘 모름.

- S :
- BL :
- E :
- R :
- 관계 :
- 개념어 :

1. ‘소속방’은 이별의 상황에서 재회의 희망도 같이 표현하였다. (○, ×)
2. ‘위생’은 자신의 상황을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여려는 자세를 드러내고 있다. (○, ×)
3. 감각적 묘사를 통하여 인물의 심정을 보여주고 있다. (○, ×)
4. 서술자가 주인공으로 등장하여 자신이 겪은 일을 고백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 ×)
5. ‘꿈’은 인물의 과거와 미래를 연결해 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다. (○, ×)
6. ‘황량한 산’, ‘선영’ 등은 전쟁의 비극성과 관련된 소재이다. (○, ×)
7. 시간이 경과될수록 주인공의 영웅적 면모가 드러난다. (○, ×)

1. ○, 2. ○, 3. ○, 4. ×, 5. ×, 6. ×, 7. ×

11) 구운몽 - 김만중

모든 남자들이 말하기를,

“첩들이 각각 한 잔씩 받들어 상공을 전송하오리다.”

잔을 씻어 다시 부으려 하는데, 홀연 막대 던지는 소리가 났다. 모든 사람들이 의아히 여기며 생각하기를, ‘어떤 사람이 올라오는가?’ 하였다. 한 노승이 눈썹이 길고 눈이 맑고 얼굴이 괴이하였다.

엄연히 좌상에 이르러 승상에게 예를 하며 말하기를,

“산야 사람이 대승상을 뵈옵니다.”

승상이 이인(異人)인 줄 알고 황망히 답례하기를,

“사부는 어느 곳으로부터 오셨나이까?”

노승이 웃으며 대답하기를,

“평생 고인을 몰라보시니 일찍이, ‘귀인은 잇기를 잘한다.’라는 말이 옳소이다.”

승상이 자세히 보니 과연 얼굴이 익은 듯하였다. 문득 깨달아 능과 남자를 돌아보며 말하기를,

“내가 지난날 토변을 정벌할 때 꿈에 동정 용궁의 잔치에 참석하고 돌아오는 길에, 한 화상이 법좌에 앉아서 경을 강론하는 것을 보았는데 노승이 바로 그 노화상이냐?”

노승이 박장대소하고 가로되,

“옳도다, 옳도다. 비록 그 말이 옳으나 꿈속에서 잠깐 만난 일은 기억하고 십 년 동안 같이 살았던 것은 기억하지 못하니 누가 양 승상을 총명하다 하였는가?”

승상이 망연자실하여 말하기를,

“저는 십오륙 세 이전에는 부모의 슬하를 떠난 적이 없고, 십육 세에 급제하여 곧바로 직명을 받아 관직에 있었으니, 동으로 연나라에 사신으로 가고 토변을 정벌하러 떠난 것 외에는 일찍이 경사를 떠나지 아니하였거늘, 언제 사부와 함께 십 년을 상종하였으리오?”

노승이 웃으며 말하기를,

“상공이 아직도 춘몽을 깨지 못하였도다.”

승상이 말하기를,

“사부는 어찌하면 소유로 하여금 춘몽을 깨게 하실 수 있나이까?”

노승이 이르기를,

“이는 어렵지 않도다.”

하고 손에 잡고 있던 석장(錫杖)을 들어 돌난간을 두어 번 두드렸다. 갑자기 네 골짜기에서 구름이 일어나 누대위를 뒤덮어 지척을 분변하지 못하였다. 승상이 정신이 아득하여 마치 취몽 가운데에 있는 듯하여 한참 만에 소리를 질러 말하기를,

“사부는 어찌하여 정도(正道)로 소유를 인도하지 아니하고 환술(幻術)로 희롱하시나이까?”

승상이 말을 마치지 못하여 구름이 걷히는데 노승은 간 곳이 없고 좌우를 돌아보니 팔 남자도 간 곳이 없었다. 승상이 매우 놀라 어찌할 바를 모르는 중에 높은 대와 많은 집들이 한순간에 없어지고 자기의 몸은 작은 암자의 포단 위에 앉았는데, 향로에 불은 이미 사라지고 지는 달이 창가에 비치고 있었다.

자신의 몸을 보니 백팔 염주가 걸려 있고 머리를 손으로 만져 보니 갓 깎은 머리털이 가칠가칠하였으니 완연히 소화상의 몸이요 전혀 대승상의 위기가 아니니, 정신이 황홀하여 오랜 후에야 비로소 제 몸이 연화도량의 성진 행자임을 깨달았다.

그리고 생각하기를, ‘처음에 스승에게 책망을 듣고 풍도옥으로 가서 인간 세상에 환도하여 양가의 아들이 되었다. 그리고 장원 급제를 하여 한림학사를 한 후 출장입상, 공명신퇴하여 두 공주와 여섯 남자로 더불어 즐기던 것이 다 하룻밤 꿈이로다. 이는 필연 사부가 나의 생각이 그릇됨을 알고 나로 하여금 이런 꿈을 꾸게 하시어 인간 부귀와 남녀 정욕이 다 허무한 일임을 알게 한 것이로다.’

성진이 서둘러 세수하고 의관을 정제히 하여 방장에 나아가니, 다른 제자들이 이미 다 모여 있었다.

대사가 큰 소리로 묻기를,

“성진아, 인간 부귀를 겪어 보니 과연 어떠하더냐?”

성진이 머리를 조아리고 눈물을 흘리며 하는 말이,

“성진이 이미 깨달았나이다. 제자가 불초하여 생각을 그릇되게 하여 죄를 지었으니 마땅히 인간 세상에 윤회하는 벌을 받아야 하거늘, 사부께서 자비하시어 하룻밤 꿈으로 제자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사부의 은혜는 천만 겁이 지나도 갚기 어렵나이다.”

대사가 말하기를,

“네가 흥을 타고 갔다가 흥이 다하여 돌아왔으니 내가 무슨 간여할 바가 있겠느냐? 또 네가 말하기를, ‘인간 세상에 윤회한 것을 꿈을 꾸었다.’라고 하니, 이는 꿈과 세상을 다르다고 하는 것이니, 네가 아직도 꿈을 깨지 못하였도다. 옛말에 ‘장자가 꿈에서 나비가 되었다가 다시 나비가 장자가 되었다.’라고 하니, 어느 것이 거짓 것이고 어느 것이 참된 것인지 분별할 수 없는 것이니, 이제 성진과 소유에 있어 어느 것이 참이며 어느 것이 꿈이냐?”

성진이 이에 대답하기를,

“제자 성진은 아득하여 꿈과 참을 분별하지 못하겠사오니, 사부는 설법을 베풀어 제자로 하여금 깨닫게 하소서.”

대사가 응낙하여 이르기를,

“이제 마땅히 『금강경』 큰 법을 베풀어 너의 마음을 깨닫게 할 것이다. 잠시 후에 새로 들어올 제자들이 있을 것이니 너는 잠깐 기다리라.”

— 김만중, 「구운몽」

- S :
- BL :
- E :
- R :
- 관계 :
- 개념어 :

1. 해학적 표현을 통해 인물 내면의 갈등을 우회적으로 드러내었다. (○, ×)
2. ‘대사’는 ‘성진’에게 불교의 가르침을 깨우치기 위해 ‘꿈’을 사용하였다. (○, ×)
3. ‘성진’은 ‘꿈’을 꾸기 전 부귀와 남녀의 정욕에 관심을 보였다. (○, ×)
4. ‘양소유’는 ‘대사’와 살았던 과거를 기억해 내지 못하였다. (○, ×)
5. 사건에 대한 서술자를 장면별로 다르게 설정하여 입체감을 부여하고 있다. (○, ×)
6. ‘대사’는 ‘양소유의 삶’과 ‘성진의 삶’ 모두 긍정적으로 여기고 있다. (○, ×)
7. 서술자의 내적 독백을 연속적으로 서술하여 소설 내의 시간을 느리게 진행시키고 있다. (○, ×)

1. ×, 2. ○, 3. ○, 4. ○, 5. ×, 6. ×, 7. ×

12) 박씨전 - 작자 미상

박 씨 하룻밤 사이에 관복을 짓되 앞에는 봉황을 새기고 뒤에는 청학을 수놓았으니, 침선(針線)함이 흠잡을 곳 없어 인간의 솜씨 아니라, 보는 사람이 뉘 아니 칭찬하리오. 계화로 하여금 승상께 드리니 승상이 보고,

“이는 천상수품(天上手品)이요 인간수침(人間繡針)은 아니라.”

하더라. 내외 상하와 일등침재들이 보매 평생에 보던 바 처음이라. 승상이 말하기를,

“박 씨를 보면 아무라도 이런 재주가 있음을 생각지 못할러라.” 하며 말하되,

“형겉 주머니에 의송(議送) 들었다.’ 하는 말이 이를 두고 이른 말이구나.” 하였다.

승상이 관복을 입고 입궐하여 절하니 임금, “경의 조복은 누가 지었느냐?”라고 하자 승상이, “신의 며느리가 지었나이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그러하면 경은 어찌 며느리를 두고 일생을 고초를 시키며, 독수공방케 하시오?”라고 하자 승상이 놀라며, “전하께옵서 어찌 그러함을 아시나이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였다.

“경의 관복을 보니, 앞에 수놓은 봉황(鳳凰)은 황(凰)이 봉(鳳)을 여임이요, 뒤에 수놓은 청학은 백설(白雪)이 산하(山河)에 가득하여 주린 기색이니, 이 어찌한 연고요?”

승상이 감히 숨기지 못하고 땅에 엎드려 아뢰었다.

“신의 며느리가 얼굴이 추하여 독수공방을 면치 못하나이다.”

임금이 말하였다.

“부부간 즐거움이 없으면 독수공방 예사려니와, 배고픔을 면치 못하기는 어찌한 연고요?”

승상이 황공해 하며, “소신은 외당에 있어 내중 일은 과연 모르나이다.” 하니 임금이 왈,

“경의 며느리 얼굴은 보지 못하였으나 관복 지은 수품을 보니 인간 재주가 아니라. 그 수품을 보건대 그 사람의 한결같음을 알지라. 부디 박대치 말고 후대하시오. 짐이 박 씨를 위하여 매일 서 말 녹(祿)을 제수하나니, 부디 후대하여 각별 조심하시오.” 하였다.

승상이 명을 받들고 집에 돌아와 이시백을 불러 꾸짖기를, “내 전부터 덕 있는 사람 박대치 말라 하였더니, 너는 어떠한 놈이기에 이같이 불초하냐?” 하니 이시백이 엎드려 개과천선할 것을 아뢰니, 승상이 훈계하시며 각별 조심함을 당부하더라.

이날부터 나라에서 사급(賜給)하신 쌀 서 말을 삼시에 한 말씩 지어 주니 박 씨 조금도 사양치 아니하고 다 먹되 오히려 부족한 듯하니 그 양이 하해(河海) 같더라. 그 후로는 집안사람이 감히 박대치 못하고 승상은 더욱 경대(敬待)하더라.

박 씨 계화를 통해 승상께 여쭙되, “아될 말씀이 있나이다.” 하는지라, 승상이 급히 들어가니 박 씨 여쭙되, “가산(家産)이 넉넉지 못하오니 성재(成財)할 도리를 하음이 좋을 듯하옵니다.” 하니 승상이, “빈부도 또한 수(數)라 어찌 인력으로 되겠느냐.”라고 답하였다.

다시 박 씨가 말하였다. “내일 종로(鐘路)에 제주(濟州) 말이 많이 왔을 것이오니, 노복을 명하옵시어 계마 중 패려하고 비루먹은 망아지를 300냥을 주고 사 오라 하옵소서.”

<중략>

일일은 승상이 계화더러 물었다. “이 사이는 너의 아씨 무슨 일을 하느냐?”

계화가 답하였다. “나무를 심으시고, 소비(小婢)는 물 주기에 골몰하나이다.”

승상이 구경코자 계화를 따라 후원 협실에 들어가니 과연 나무를 심어 무성하였는데 그 나무가 사면에 뻗어 용과 범이 수미(首尾)를 응하였고 가지와 잎은 뱀과 각색 짐승이 되어 서로 응하여 보기 엄숙하고 운무 자욱한 듯하여, 오래 서서 이윽히 보니 그 가운데 바람과 구름의 변화를 예측하기 어려운지라. 또한 협방을 보니 문 위에 현판을 붙였으니 ‘피화당(避禍堂)’이라 하였거늘 승상이 박 씨를 보고 말하였다.

“저 나무는 무엇이며 피화당이란 말은 어찌한 말이나?”

박 씨가 답하였다.

“이후 불행한 때를 만나면 저 나무로 화를 면하올 터이옵기로 당호를 피화당이라 하였나이다.”

승상이 그 말을 듣고 놀라고 의심하여 길흉을 물으니 박 씨가 답하였다.

“황송하오나 묻지 마옵소서. 그때를 당하면 자연 아실 것입니다. 천기(天機)를 누설치 못하나이다.”

승상이 그 신기함에 탄복하며,

“슬프다, 너는 진실로 영웅호걸이라! 남자로 되었던들 무슨 근심이 있으리오. 나는 남의 아버가 되어 한낱 자식을 불초케 두었다가 너 같은 사람을 박대하니 나의 나이 이미 육십이라, 곧 나 죽으면 너같이 어진 사람이 목숨을 보전치 못하렷다.” 하였다.

박 씨 위로 왈,

“저의 위인이 부족하여 팔자가 험하오니 어찌 남편을 원망하오리까. 남편이 어서 임신양명하여 부모께 효도하고 나라에 충성하여 어진 가문에 다시 취처(娶妻)하여 유자(有子)하여 만대에 유전하오면 천첩(賤妾) 같은 인생은 죽어도 한이 없겠나이다.”

승상이 듣고 며느리의 어짚에 탄복하여 눈물을 흘리며 나와서 아들 시백을 불러 꾸짖기를,

“너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덕 있는 사람을 구박하니, 장차 내 집이 망하리로다.” 하였다.

한편 박 씨가 종로에서 사 온 망아지를 3년을 기르니 그 말이 용의 몸에 범의 머리오 걸음은 추천(秋天)의 구름 같더라.

박 씨가 승상께 아뢰었다.

“모월 모일이 되면 중국에서 칙사가 나올 것이니 그때 이 말을 새문 밖 영은문에 매어 두면, 칙사가 보고 당장에 사자 하며 말값을 물을 것이니, 이때 3만 냥이라 하옵소서.”

- 작자 미상, 「박씨전」

- S :
- BL :
- E :
- R :
- 관계 :
- 개념어 :

1. 서술자는 인물의 행동을 짧은 문장으로 서술하여 인물이 느끼는 불안함을 드러내고 있다. (○, ×)
2. 서술자는 대상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을 드러내고 있다. (○, ×)
3. ‘박 씨’는 자신의 문제적 상황을 드러내기 위하여 신비한 능력을 사용하였다. (○, ×)
4. ‘임금’은 ‘박 씨’의 뛰어난 면모를 알아채 상을 내리었다. (○, ×)
5. ‘박 씨’는 자신의 미래를 알고 대비하였다. (○, ×)
6. ‘이 시백’은 ‘박 씨’의 외양 때문에 만나기를 꺼려하였다. (○, ×)
7.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주인공이 처한 상황 또는 주인공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 ×)

1. ×, 2. ○, 3. ○, 4. ○, 5. ○, 6. ○, 7. ○

13) 소현성록 - 작자 미상

화설. 소운명이 뛰어난 재주를 지닌 젊은이로 몸이 높은 자리에 올라 옥당을 밟으니 명성과 덕망이 조정에 진동하였고 문장은 이태백과 두보를 압두하였다. 그러자 사람마다 탄복하여 그 재취 자리를 바라며 구혼하는 폐파가 문을 시끄럽게 하였으나 승상 소현성이 허락하지 않자 소운명이 마음속의 회포가 울적하고 답답해 늘 탄식하였고 부친의 명이 기구한 것을 한탄하였다.

이해 초겨울에 소운명이 산서 지방의 순안어사로 나갈 때 소 승상이 타이르며 말하였다.

“너의 소임이 무거운 데 비해 나이는 젊으니 마땅히 밤낮으로 근심하여 늘 청렴하고 급한 성미를 보이지 마라. 옥사(獄事)를 처리할 때에는 공정하게 하고 청탁을 듣지 말며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을 보호하고 풍악과 술과 안주를 베풀지 마라. 만일 가르침을 거역하여 창기를 모으고 잡된 무리를 사귀어 어지럽게 예를 잃어버려 집안의 명성을 더럽게 한다면 내 눈앞에서 보이지 마라.”

소 부인이 이어서 말하였다.

“무릇 사람을 대함에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거나 난잡하지 않으면서 자애롭고 인자하며 후덕한 것이 군자가 할 일이니 너무 매몰차게 하지 않도록 하여라.”

소운명이 머리를 숙이고 사례하며 말하였다.

“오늘 아버지와 숙모께서 주신 밝은 가르침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드디어 하직할 때에 온 집안사람들이 모두 섭섭해 하였고, 화 부인은 눈물을 흘리며 이별하였다. 소운명이 대궐 아래에 가서 조서를 받고 나서는 절월*을 지니고 산서 지방으로 향할 때 십 리까지 잔치를 베풀어 이별하였다.

소운명이 길을 떠나 산서 지방에 이르렀다. 부임을 한 뒤 덕과 위엄을 두루 갖추어 공무를 보자 몇 개월 사이에 교화가 크게 베풀어졌다. 사람들이 일찍이 소운현이 총마어사를 할 때의 덕을 흠모하더니 소운명의 행동이 소운현에게 뒤지지 않는 것을 보고 별명을 짓기를 ‘맑고 현명한 두 명의 소씨 선비’라고 하였다.

세월이 빨리 지나가 다음 해 2월에 소운명이 노복과 말을 갖추어 두루 순행하였다. 안무현에 이르러 산수가 뛰어난 것을 보고는 일을 처리한 후에 거느린 종과 행장을 모두 물리치고 유람을 하고자 하였다.

각설. 산서 안무현 출신의 재상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름이 이원기였다. 이원기는 사람이 맑고 깨끗하고 성품이 강직하고 곧았으며 뛰어난 재주로 인해 명성이 자자하였다. 일찍이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이 이부상서에 오르자 그 명망이 세상에 요란하였는데, 오래전부터 앓고 있던 병이 침노하여 드디어 벼슬을 버리고 고향에 돌아와 여생을 마쳤다. 곧이어 부인 여 씨가 죽었다. 슬하에 오직 외동딸이 있었는데 이름은 옥주이며 나이가 11세였다. 다른 친척이 없고 오로지 부모를 의지하였다가 하루아침에 부모를 잃어버리는 아픔을 만나니 혈혈단신으로 약간의 노비와 함께 겨우 부모의 장사를 지냈고 집안의 재산은 모두 흩어져 버렸다. 그래서 밤낮으로 슬퍼하며 푸른 하늘을 우러러 부모의 신령을 부를 따름이었다.

며칠이 지나지 않아 도적이 들어와 소란을 피워 집을 차지하고 자신들의 소굴로 삼자 이옥주가 겨우 몸을 벗어났다. 시비 춘앵과 함께 홀몸을 의탁할 곳이 없어 죽고자 하였는데 춘앵이 겨우 붙들어 구하여 말하였다.

“이제 길 위에서 죽어 주인님과 부인의 신령을 의탁할 곳이 없게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옛날 제영은 아버지의 죄를 신원하고 목란은 아버지를 대신하여 국경을 지켰으니 사람이 낳아서 길러 준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 몸의 괴로움을 벗어 버리려고 긴 목숨을 끊어 제사를 버리는 것은 지극한 불효입니다. 소저는 생각하여 보십시오.”

이 소저가 슬픔을 진정하고 억지로 남북을 입고 춘앵과 서로 붙들고는 갈 곳이 없음을 통곡하며 말하였다.

“어려서부터 대대로 높은 벼슬을 누려 온 가문에서 자라나 아름다운 집에서 비단옷도 무겁게 느껴지고

고 맛있는 음식 또한 입에 맞지 않게 되었다. 그런데 이제 생각지도 못한 이런 곤란한 액운을 만나 죽지도 않고 도로에서 결식하게 되니 이는 위로는 집안의 명성을 더럽게 하는 것이고 아래로는 나에게 더러운 소문이 있을 것이니 결코 살지 못할 것이다.”

춘앵이 백방으로 마음을 너그럽게 가지도록 하였다. 그러던 가운데 산 밑에 도착하였는데 봄바람이 냉담하고 꽃들은 생기가 있으니 두 사람이 참혹하고 비통하여 한바탕 크게 울고 모란 떨기 속에 엎드려 쉬고 있었다.

이때 마침 소운명이 유람을 하고 있었다. 소운명이 결의 노비를 다 물리치고 동자 한 명만 거문고를 가지고 따라

오라고 하였다. 대나무 지팡이를 꺾어 짚고 신발을 끌고 유생의 옷차림으로 산수를 둘러보았다. 문인의 흥치가 높으니 몸이 가볍고 걸음걸이가 나는 것 같았는데 한 곳에 이르자 그윽한 산속에 소나무와 잣나무가 울창하여 시냇물에 비치고 온갖 꽃이 만발하고 동풍이 화창하게 불어오는 것이 비단 장막을 두루 친 듯하였다.

소운명이 키가 작고 옆으로 퍼진 소나무 아래에 있는 바위에 올라 앉아 거문고를 가지고 곡조 하나를 타자 맑은 흥과 운치가 일어났다. 입으로는 송옥의 백주시를 부르며 깊이 들어가는 줄을 깨닫지 못하였는데 오십 걸음을 지나자 꽃과 나무들 사이에 소년 한 명이 흰 두건을 쓰고 베로 지은 옷을 입고 비스듬히 서 있었다. 그는 마치 흐린 구름 속의 맑은 달과 같고 진흙 가운데에 좋은 옥이 묻혀 있는 것 같아 광채가 영롱하였다. 소운명이 한번 바라보자 마음이 급해져 바빠 나아가 인사를 하며 말하였다.

“청명 절기에 유람을 하는 것은 문인의 의지와 기개입니다만 수풀 사이로 선인이 더러운 속세에 수고롭게 왕림하시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그 사람이 놀라서 눈을 들어 보니 다만 재주가 뛰어나 보이는 사람인 것 같은 이가 있었다. 붉은 입술과 흰 이로 학의 울음과 같은 목소리를 내어 물어보는 것을 보고 빨리 일어나 답례를 하고 대답하며 말하였다.

“소생은 본토 사람으로 일찍 부모를 이별하고 몸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의지할 곳이 없어 낙엽같이 떠돌아다니니 어찌 노닐며 즐길 사이가 있겠습니까? 존사는 어떤 사람이시기에 외로이 혼자서 무엇을 보십니까?”

[뒷부분 줄거리] 소운명은 소년이 남장을 한 이 소저임을 알게 되고, 이 소저에게 애정을 느끼게 된다. 소운명은 부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소저와의 혼인에 성공한다.

- 작자 미상, 「소현성록」

* 절월 : 지방에 부임하는 신하에게 임금의 내어주던 물건.

- S :
- BL :
- E :
- R :
- 관계 :
- 개념어 :

1. ‘이 소저’는 가문의 명예를 위하여 목숨을 끊으려고 하였다. (○, ×)
2. 감각적 묘사를 통해 배경을 그리고 있다. (○, ×)
3. 서술자가 관찰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 ×)
4. ‘소 승상’은 ‘소 운명’에게 단호한 어조로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 ×)
5. ‘안무현’은 인물들의 이별과 만남이 교차하는 애환이 담긴 공간이다. (○, ×)
6. 병렬적으로 사건을 구성하여 이야기의 입체감을 높이고 있다. (○, ×)
7. ‘이 옥주’는 ‘소 운명’에게 자신의 정체를 들키자 사실을 밝혀 오해를 풀었다. (○, ×)

1. ○, 2. ○, 3. ○, 4. ○, 5. ×, 6. ○, 7. ×

14) 장풍운전 - 작자 미상

이 노인은 전 통판 ‘이운경’이니 나이 들어 고향에 돌아와 세월을 보낼새 마침 자기 고을 수령을 보고 돌아오다가 장풍운의 비범함을 보고 기특히 여겨 데려온 것이다.

통판의 전 부인 최 씨 일자일녀를 낳고 일찍 죽었으니, 여아는 경패요 남아는 경운이라. 그 뒤 호 씨를 재취하여 자녀를 두었는데 호 씨 천성이 사나워 경패 남매를 시기하고 구박함이 자심(滋甚)하매 통판이 매양 통한하여 하더니 차일 풍운을 만나 가장 기뻐하며 호 씨더러 왈,

“길에서 기특한 아이를 만나 데려왔으니 부인은 사랑하여 기르소서. 이 아이 나이 차면 부귀쌍전(富貴雙全)하리니 경패의 배우자를 삼아 우리 가문을 빛나게 하리라.”

하고 풍운을 불러 빈대 호 씨 변색 왈,

“상공은 나라에 큰 공을 세워 명망이 조정에 진동하거늘 근본 없이 거리로 다니는 아이를 천금여아(千金女兒)의 배필을 삼으려 하시니 남의 비웃음을 면치 못할까 하나이다.”

통판이 소 왈,

“이 아이 나중에 반드시 이름이 천하에 진동하리니 아직 떠돌을 어찌 혐의하리오.”

하니 호 씨가 풍운을 자세히 보니 은은한 골격과 열렬한 정신이 훌륭하여 가만히 생각하길, 경패의 배우자를 삼으면 제 자식이 보잘것없어질까 하여 해칠 뜻을 두더라.

이후로 통판이 풍운을 가르치매 문일지십하는 재주 있는지라 공은 애중히 여기나 호 씨는 시기하여, ‘먼저 경패를 없애리라.’ 하고 독약을 죽에 넣어 주니 경패가 받다가 놓치거늘 호 씨 크게 꾸짖고 계교 이루지 못함을 한탄하였다.

세월이 흘러 풍운의 나이 십오 세요 경패는 십육 세라. 공이 택일 성혼할새 경패의 작약(縛約)한 자색(姿色)과 장생의 화려한 풍채 짐짓 백년가우(百年佳偶)라.

그러나 호 씨 기뻐하지 않거늘 공이 생각하되,

‘호 씨의 불측함이 여차하니 내 죽은 후면 부부가 해를 만나리로다.’

하며 근심하더니 홀연 공이 득병하여 백약이 무효하매 회복 못 할 줄 알고 풍운의 손을 잡고 왈,

“후취 호 씨 어질지 못하여 경패의 남매를 해하려 하되 내 있기로 아직 마음먹지 못하더니, 내 세상을 버리면 너희들 반드시 화를 만날 것이니 가장 슬프도다!”

풍운이 대 왈,

“인명이 재천하오니 설마 어찌하리잇고?”

공이 슬퍼하며 왈,

“자네는 오륙 년 후면 몸이 크게 귀해지리니 나의 자녀를 잊지 아니하면 혼백이라도 즐거우리로다.”

하고 유서를 주어 왈,

“호 씨 박대 참혹하거든 이를 보라!”

하고 또 일봉서(一封書)를 소저에게 주어 왈,

“나 돌아간 후 서랑(婿郎)을 각별 경대하되 만일 계모의 간계(奸計) 급하거든 이를 보라!”

하고 호 씨와 자녀 등을 불러 앉히고 장탄 왈,

“내 불행하여 황천객이 되니 부인은 슬퍼 말고 여러 자녀를 거느려 보중하라.”

하고 인하여 별세하니 소저의 애통함과 풍운의 슬퍼함은 측량치 못할러라. 세월을 당하매 녹림원 선산에 안장하니, 이후로 호 씨의 행악이 무쌍하매 장생이 차마 견디지 못하여 통판 유서를 보니,

‘노부가 노중에서 그대를 만나 칠 년 동거하니 정이 깊도다. 용렬한 여아로 군의 조강을 삼으니 외람함이 많도다. 노부가 세상을 이별하니 한때 빌기 어렵도다. 차후 그대 영귀할 때 지난 일을 잊지 아니 하면 황천에 가도 보은하리로다. 호 씨 강악함이 있거든 소소한 여자를 생각지 말고 경운을 데리고 집을 떠나 소흥 연경사로 가면 자연 구할 사람이 있을 것이니 그대는 거취를 임의로 하라.’

하였거늘 보기를 마치고 침소에 들어가 장생이 소저더러 왈,

“부모를 이별하고 도로(道路)의 걸식하는 잔명(殘命)을 대인이 거두어 보살피사, 사위를 허하시니 은덕을 난망이라. 길이 백 세를 피실까 하였더니 생의 팔자 기구하여 대인이 세상을 버리시고 호 씨 구박이 날로 심하니 더 이상 오래 머물지 못할 것이요, 하물며 대인 유서에 ‘그대를 생각지 말고 경운을 데리고 소흥으로 가라.’ 하시니, 이별이 망극하다.”

<중략>

장생이 받아 놓고 내당에 들어가 호 씨를 보고 하직 왈,

“생이 이제 슬하를 떠나 사해(四海)를 돌아다니며 자취를 세상에 부치고자 하나이다.”

호 씨 혼연 왈,

“나의 자녀가 장성하매 두루 구혼하되, 장랑(張郎)의 근본 없음을 빈정거리며 저마다 거절하니 심히 불안한지라. 장랑이 이미 나가려 하니 장연하나 만류치 못하리다.”

하고 조금도 권연한* 빛이 없거늘 장생이 침소에 돌아오니 소저가 호 씨의 거동을 묻거늘 장생이 그 사연을 전하고 왈,

“우리 양인(兩人)을 생각지 말고 육칠 년만 기다리라.”

소저 유체(流涕) 왈,

“금일 상별하니 만나기 묘연하고 첩의 사생을 모르나니 첩은 죽어도 불관하거니와 경운의 일신이 고단하니 군자는 애홀하소서.”

하고 진주투심(眞珠套心)* 반편을 주어 왈,

“만일 첩이 보존하여 다시 만날진대 이것으로 신표를 삼으소서.”

장생이 또한 헌옷 하나를 소저에게 전하여 왈,

“이것이 비록 헌옷이나 모친의 수품이니 날 보는 것처럼 하라.”

하며 보증함을 재삼 당부하고 경운이 소저에게 하직할새 서로 누수(淚水)가 만면하여 그 형상이 참담하더라.

- 작자 미상, 「장풍운전」

* 권연한 : 사모하여 뒤돌아보는.

* 진주투심: 여자들의 새양머리에 꽂는, 진주로 만든 장식물.

- S :
- BL :
- E :
- R :
- 관계 :
- 개념어 :

1. 시간의 흐름을 비약시킴으로써 사건의 전개 속도를 높이고 있다. (○, ×)
2. 서술자의 개입을 통해 인물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 ×)
3. ‘이 운경’은 ‘호 씨 부인’의 모함에 의해 죽었다. (○, ×)
4. ‘일봉서’는 ‘장 풍운’의 행동에 변화를 일으키는 역할을 한다. (○, ×)
5. 섬세하고 치밀한 묘사를 통해 비장함을 자아내고 있다. (○, ×)
6. ‘이 운경’과 ‘장 풍운’은 갈등의 근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집을 떠났다. (○, ×)
7. 대화와 행동을 통해 인물의 성격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

1. ○, 2. ○, 3. ×, 4. ○, 5. ×, 6. ×, 7. ○

15) 춘향전 - 작자 미상

“저 건너 화류 중에 오락가락 희뜩희뜩 어른어른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세히 보아라.”

통인이 살펴보고 여쭙되 “다른 무엇이 아니오라 이 고을 기생 월매 딸 춘향이란 계집아이로소이다.”

도련님이 엉겁결에 하는 말이 “매우 좋다. 훌륭하다.”

통인이 아뢰되 “제 어머니는 기생이오나, 춘향은 도도하여 기생 구실 마다하고 백화초엽의 글자도 생각하고, 여공 재질이며 문장을 겸전하여 여염 처자와 다름이 없나이다.”

도련님이 허허 웃고 방자를 불러 분부하되 “들은즉 기생의 딸이라니 급히 가 불러오너라.”

방자 놈 여쭙오되 “설부화용*이 남방에 유명하기로 방첩사, 병부사, 군수, 현감, 관장님네 양반 외입쟁이들도 무수히 보려 하되 장강의 색*과 임사의 덕행이며 이두보의 문필이며 태사의 화순심*과 이비의 정절을 품었으니 금천하지 절색이요, 만고여중군자오니 황공하온 말씀으로 초래하기 어렵나이다.”

도련님이 대소하고, “방자야, 네가 물각유주*를 모르는도다. 형산의 백옥과 여수의 황금이 임자가 각각 있느니라. 잔말 말고 불러오라.”

방자 분부 듣고 춘향 초래하러 건너갈 제 맵시 있는 방자 녀석 서왕모 요지연의 편지 전하던 청초 같이 이리저리 건너가서 “여봐라, 이 애 춘향아.”

부르는 소리에 춘향이 깜짝 놀라서 “무슨 소리를 그따위로 질러 사람의 정신을 놀라게 하느냐.”

“이 애야, 말 마라. 일이 났다.”

“일이라니, 무슨 일?”

“사또 자제 도련님이 광한루에 오셨다가 너 노는 모양 보고 불러오란 영이 났다.”

춘향이 화를 내어 “네가 미친 자식이다. 도련님이 어찌 나를 알아서 부른단 말이냐? 이 자식, 네가 내 말을 중지리새 열씨 까듯 하였나 보다.”

“아니다. 내가 네 말을 할 리가 없으되, 네가 그르지 내가 그르냐? 네가 그른 내력을 들어 보아라. 계집아이 행실로 추천을 할 생각이면 네 집 후원 담장 안에 줄을 매고 남이 알까 모를까 은근히 매고 추천하는 게 도리에 당연함이라. 광한루 멀지 않고 또한 이곳을 논지할진대 녹음방초송화사*라. 방초는 푸르렀고 앞내 버들은 초록장 두르고 뒷내 버들은 유록장* 둘러 한 가지 늘어지고 또 한 가지 평퍼져 광풍을 못 이겨 흔들흔들 춤을 추는데 광한루 구경처에 그네 매고 네가 펼 제 외씨 같은 두 발길로 백운 사이에 노닐 적에 홍상자락이 펄펄, 백방사 속곳 가래 동남풍에 펄렁펄렁, 박속 같은 네 살결이 백운 사이에 희뜩희뜩, 도련님이 보시고 부르실 제 내가 무슨 말을 한단 말인가. 잔말 말고 건너가자.”

춘향이 대답하되

“네 말이 당연하나 오늘이 단옷날이라 비단 나뻐이라. 다른 집 처자들도 예 와 함께 그네를 뛰었으되, 그럴 뿐 아니라 설혹 내 말을 할지라도 내가 지금 시사*가 아니거늘, 여염 사람을 호래척거*로 부를 리도 없고, 부른대도 갈 리도 없다. 당초에 네가 말을 잘못 들은 바라.”

방자가 이면이 붉어져 광한루로 돌아와 도련님께 여쭙으니 도련님 그 말 듣고

“기특한 사람이다. 인즉시야로되 다시 가 말을 하되 이러이러 하여라.”

방자 전갈 받들어 춘향에게 건너가니 그 새에 제 집으로 돌아갔거늘, 저의 집을 찾아가니 모녀간이 마주 앉아 점심밥이 방장이라. 방자 들어가니

“너 왜 또 오느냐?”

“황송하다. 도련님이 다시 전갈하시더라. ‘내가 너를 기생으로 얹어 아니라, 들으니 네가 글을 잘 한다기로 칭하노라. 여가에 있는 처자 불러 보기 청문에 괴이하나 혐의로 알지 말고 잠깐 와 다녀 가라.’ 하시더라.”

춘향의 도량한 뜻이 연분 되려고 그러한지 홀연히 생각하니 갈 마음이 나되 모친의 뜻을 몰라 침음양구* 말 안하고 앉았더니, 춘향 모 썩 나앉아 정신없게 말을 하되

“꿈이라 하는 것이 모두 다 허사가 아니로다. 간밤에 꿈을 꾸니 난데없는 청룡 한 마리가 벽도지에 잠겨 보이거늘 무슨 좋은 일이 있을까 하였더니 우연한 일이 아니로다. 또한 들으니 사또 자제 도련님 이름이 몽룡이라 하니,

꿈 몽(夢) 자 용 룡(龍) 자 신통하게 맞추었다. 그러나 저러나 양반이 부르시는데 아니 갈 수 있겠느냐. 잠깐 가서 다녀오라.”

<중략>

이때 춘향이 추파를 잠깐 들어 이 도령을 살펴보니 금세의 호걸이요, 진세간의 기남자라. 천정이 높았으니 소년 공명할 것이요, 오악이 조귀하니 보국 충신이 될 것이니 마음으로 흠모하여 아미를 숙이고 염슬단좌* 뿐이로다.

이 도령 하는 말이 “성현도 불취동성*이라 일렀으니, 네 성은 무엇이며, 나이는 몇 살이요?”

“성은 성가이웁고, 나이는 십육 세로소이다.”

이 도령 거동 보소. “허허. 그 말 반갑도다. 너의 나이 들어 보니 나와 동갑 이팔이라. 성자를 들어 보니 천정*임이 분명하다. 이성지합 좋은 연분, 평생 동락하여 보자. 네 부모 구존한가?”

“편모하로소이다.”

“몇 형제나 되느냐?”

“육십 당년 나의 어머니 무남독녀 나 하나요.”

“너도 남의 집 귀한 딸이로다. 천정하신 연분으로 우리 둘이 만났으니 만년의 즐거움을 이뤄 보자.”

춘향이 거동 보소. 팔자청산 쟁그리며 주순*을 반쯤 열어 가는 목 겨우 열어 옥 같은 목소리로 여쭙오되 “충신불사이군 열녀불경이부절은 옛글에 일렀으니 도련님은 귀공자요, 소녀는 천첩이라. 한 번 탁정*한 연후에 인하여 버리시면 일편단심 이내 마음 독수공방 홀로 누워 우는 이내 신세 내 아니면 뉘가 그럴고? 그런 분부 마옵소서.”

이 도령 이른 말이 “네 말을 들어 보니 어이 아니 기특하라. 우리 둘이 인연 맺을 적에 굳은 약속 맺으리라.”

- 작자 미상, 「춘향전」

- * 설부화용(雪膚花容) : 흰 피부와 꽃 같은 얼굴.
- * 장강의 색 : 춘추 시대 위 부인의 아름다운 용모.
- * 화순심 : 온화하고 순한 마음.
- * 물각유주(物各有主) : 물건에는 각기 주인이 있음.
- * 녹음방초승화시(綠陰芳草勝花時) : 우거진 나무 그늘과 풀이 향기로운 때가 꽃 피는 시절보다 좋음.
- * 유록장 : 유록색의 휘장. 유록색은 푸른빛과 누른빛의 중간임.
- * 시사 : 이속이나 또는 기생이 그 메인 마을에서 맡은 일을 치르는 일.
- * 호래척거(呼來斥去) : 사람을 오라 불러놓고 쫓아버림.
- * 침음양구(沈吟良久) : 입속으로 응얼거리며 한참 생각함.
- * 염슬단좌(斂膝端坐) : 무릎을 꿇고 단정히 앉음.
- * 불취동성(不娶同姓) : 같은 성끼리 혼인하지 않음.
- * 천정(天定) : 하늘이 정해 준 인연.
- * 주순(朱脣) : 붉은 입술.
- * 탁정(託情) : 인연을 맺음.

- S :
- BL :
- E :
- R :
- 관계 :
- 개념어 :

1. 서술자의 직접적 개입이 나타나 있다. (○, ×)
2. 의성어와 의태어를 사용하여 인물의 상황을 구체화하고 있다. (○, ×)
3. ‘춘향이’는 ‘춘향 모’의 꿈을 들은 후 ‘이 몽룡’을 만날 생각이 들었다. (○, ×)
4. 예스러운 말투와 사자성어의 사용으로 인물을 희화화하고 있다. (○, ×)
5. ‘춘향이’는 처음에 방자가 전하는 말을 믿지 않았다. (○, ×)
6. 서술의 초점을 한 인물에 맞추어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 ×)
7. ‘춘향이’와 ‘이 몽룡’은 대화가 진행될수록 높임말로 서로를 존대하고 있다. (○, ×)

1. ○, 2. ○, 3. ×, 4. ×, 5. ○, 6. ×, 7. ×

16) 양반전 - 박지원

양반이란 사족(士族)을 높여 부르는 말이다. 정선 고을에 한 양반이 있었는데 어질고 글 읽기를 좋아하였으므로, 군수가 새로 도입하게 되면 반드시 몸소 그의 오두막집에 가서 인사를 차렸다. 그러나 집이 가난하여 해마다 관청의 환곡을 빌려 먹다 보니, 해마다 쌓여서 그 빚이 1천 섬에 이르렀다. 관찰사가 고을을 순행하면서 환곡 출납을 조사해 보고 크게 노하여,

“어떤 놈의 양반이 군량미를 축냈단 말인가?”

하고서 그 양반을 잡아 가두라고 명했다. 군수는 그 양반이 가난하여 보상을 할 길이 없음을 내심 안타깝게 여겨 차마 가두지는 못하였으나, 그 역시도 어찌할 수 없는 일이었다. 양반이 어떻게 해야 할 줄을 모르고 밤낮으로 울기만 하고 있으니, 그의 아내가 몰아세우며,

“당신은 평소에 그렇게 글 읽기를 좋아하더니만 현관(縣官)에게 환곡을 갚는 데에는 아무 소용이 없구려. 쫓쫓 양반이라니, 한 푼짜리도 못 되는 그놈의 양반.”

이라 했다.

그때 그 마을에 사는 부자가 식구들과 상의하기를,

“양반은 아무리 가난해도 늘 높고 귀하며, 우리는 아무리 잘살아도 늘 낮고 천하여 감히 말도 타지 못한다. 또한 양반을 보면 움츠러들어 숨도 제대로 못 쉬고 뜰 아래 엎드려 절해야 하며, 코를 땅에 박고 무릎으로 기어가야 하니 우리는 이와 같이 욕을 보는 신세다. 지금 저 양반이 환곡을 갚을 길이 없어 이만저만 군욕(窘辱)을 보고 있지 않으니 진실로 양반의 신분을 보 존 못할 형편이다. 그러니 우리가 그 양반을 사서 가져 보자.”

하고서 그 집 문에 나아가 그 환곡을 갚아 주겠다고 청하니, 양반이 반색하며 그렇게 하라고 했다. 그래서 부자는 당장에 그 환곡을 관에 바쳤다. 군수가 크게 놀라 웬일인가 하며 그 양반을 위로도 할 겸 어떻게 해서 환곡을 갚게 되었는지 묻기 위해 찾아갔다. 그런데 그 양반이 병거지를 쓰고 잠방이를 입고 길에 엎드려 소인이라 아뢰며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는 것이 아닌가. 군수가 깜짝 놀라 내려가 붙들며,

“그대는 왜 이렇게 자신을 낮추어 욕되게 하시오?”

하니까, 양반이 더욱더 벌벌 떨며 머리를 조아리고 땅에 엎드리며,

“황송하옵니다. 소인 놈이 제 몸을 낮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환곡을 갚기 위하여 이미 제 양반을 팔았으니, 이 마을의 부자가 이제는 양반입니다. 소인이 어찌 감히 예전의 칭호를 함부로 쓰면서 스스로 높은 척하오리까?” 했다. 군수가 탄복하며,

“군자로다, 부자여! 양반이로다, 부자여! 부자로서 인식하지 않은 것은 의(義)요, 남의 어려운 일을 봐준 것은 인(仁)이요, 비천한 것을 싫어하고 존귀한 것을 바라는 것은 지(智)라 할 것이니 이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양반이로고. 아무리 그렇지만 사적으로 주고받았을 뿐 아무런 증서도 작성하지 않았으니 이는 소송의 빌미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나와 너는 고을 백성들을 불러 모아 그들을 증인으로 세우고, 증서를 작성하여 믿게 하자. 군수인 나도 당연히 자수(自手)로 수결(手決)할 것이다.”

했다. 그리고 군수는 관사로 돌아와, 고을 안의 사족 및 농부, 장인, 장사치들을 모조리 불러다 뜰 앞에 모두 모이게 하고서, 부자를 향소(鄉所)의 마른편에 앉히고 양반은 공형(公兄)의 아래에 서게 하고 다음과 같이 증서를 작성했다.

“건륭(乾隆) 10년 9월 모일, 위의 명문(明文)은 양반을 갚을 처서 팔아 관곡을 갚기 위한 것으로서 그 값은 1천 섬이다. 대체 그 양반이란, 이름 붙임 갖가지라. 글 읽은 이는 선비 되고, 벼슬아친 대부 되고, 덕 있으면 군자란다. 무관 줄은 서쪽이요, 문관 줄은 동쪽이라. 이것이 바로 양반, 네 맘대로 따를 지니. 비루한 일 끊어 버리고, 옛사람을 흠모하고 뜻을 고상하게 가지며, 오경이면 늘 일어나 유향에 불붙여 기름등잔 켜고서, 눈을 코끝을 내리 보며 발꿈치를 괴고 앉아, 얼음 위에 박 밀 듯이 동래박의(東萊博議)를 줄줄 외워야 한다.”

<중략>

호장(戶長)이 문서를 다 읽고 나자 부자가 어처구니없어 한참 있다가 하는 말이,

“양반이라는 것이 겨우 이것뿐입니까? 제가 듣기로는 양반은 신선 같다는데, 정말 이와 같다면 너무

도 심하게 횡령당한 셈이니, 원컨대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고쳐 주옵소서.”

하므로, 마침내 증서를 이렇게 고쳐 만들었다.

“하느님이 백성 내니, 그 백성은 사농공상(士農工商) 넷이로세. 네 백성 가운데는 선비 가장 귀한지라, 양반으로 불리면 이익이 막대하다. 농사, 장사 아니 하고, 문사(文史) 대강 섭렵하면, 크게 되면 문과(文科) 급제, 작게 되면 진사(進士)로세. 문과 급제 홍패(紅牌)라면 두 자 길이 못 넘는데, 온갖 물건 구비되니, 이게 바로 돈 전대(纏帶)요, 서른에야 진사 되어 첫 벼슬에 발 디더도, 이름난 음관(蔭官) 되어 웅남행(雄南行)으로 잘 섬겨진다. 일산 바람에 귀가 희고 설령줄에 배 처지며, 방 안에 떨어진 귀걸이는 어여쁜 기생의 것이요, 뜨락에 흩어져 있는 곡식은 학(鶴)을 위한 것이라. 궁한 선비 시골 살면 나름대로 횡포 부려, 이웃 소로 먼저 갈고, 일꾼 뺏어 김을 매도 누가 나를 기억하리. 네놈 코에 젓물 붓고, 상투 잡아 도리질하고, 귀얄수염 다 뽑아도, 감히 원망 없느니라.”

부자가 그 문서 내용을 듣고 있다가 혀를 내두르며,

“그만두시오, 그만두시오. 참으로 맹랑한 일이오. 장차 날더러 도적놈이 되란 말입니까?”

하며 머리를 흔들고 가서는, 종신토록 다시 양반의 일을 입에 내지 않았다.

- 박지원, 「양반전」

- S :
- BL :
- E :
- R :
- 관계 :
- 개념어 :

1. 대화를 통해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 ×)
2. ‘아내’는 비꼬는 말로 양반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 ×)
3. 작품 속의 서술자가 직접 인물의 미래를 제시하고 있다. (○, ×)
4. ‘양반’의 모습과 비교하면서 ‘부자’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있다. (○, ×)
5. 요약적 서술을 통해 ‘양반’의 삶의 내력을 드러내고 있다. (○, ×)
6. 회상 형식을 통해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여 보여주고 있다. (○, ×)
7. 풍자적 서술을 통해 인물의 행위를 비판하고 있다. (○, ×)

1. ○, 2. ○, 3. ×, 4. ○, 5. ×, 6. ×, 7. ○

17) 심청가 - 작자 미상

<진양조>

오색 채단을 옥기린에 가득 싣고 벽도화를 사면에 벌려 꿰고 청학 백학은 전배(前陪) 서고 수궁에 내려올 제, 용왕도 황급하여 문전에 배례할 제 부인이 들어와 심청 손을 부여잡고 네가 나를 모르리라. 나는 세상에서 너 낳은 곱씨로다. 너의 부친 많이 늙었으리라. 나는 죽어 귀히 되어 천상에 올라가 광한전 옥진 부인 되었는데 너는 부친 눈을 띄우려고 삼백 석에 몸이 팔려 수궁에 왔단 말을 듣고 너를 보러 내 왔노라. 귀와 목이 의젓한 게 어찌 아니 네 아버지라. 심청이 그제야 모친인 줄 짐작하고 부인 목을 부여잡고, 아이고 어머니 어머니 이게 꿈이요 생시요. 불효 여식 청이는 앞 어둔 백발 부친 홀로 두고 나왔는데 외로운 아버지네 뒤를 의지하오리까. 부인이 심청을 만류하는데, 내 딸 청아 우지 마라 너는 일후에 세상에 다시 나가 만종록(萬鍾祿)을 누리리라. 너의 부친 뵈옵는 날 날 본 말을 다하여라. 광한전 말은 일이 직분이 허다하여 오래 지체 어려워라. 나는 올라간다는 내 딸 너도 잘 가거라. 옥패소리가 나더니마는 오색 채운으로 올라가니 심청이 따라갈 수 전연 없고 가는 모친을 우두커니 바라보며 모녀 작별이 또 되는구나.

<아니리>

옥황상제께서 사해 용왕을 다시 불러 심 낭자 방년(芳年)이 가까우니 인간으로 환송하되 귀인으로 인도하라. 용왕이 명을 받고 심 낭자를 환송하되 꽃 한 봉을 조화 있게 만들어 그 속에 모시고 양계 선녀로 시위하고 금은보패를 가득 넣어 인당수 띄웠구나. 용왕의 조화(造化)인지라 바람이 분들 흔들리며, 비가 온들 젖을소냐. 오색 채운 꽃송이에 어리어 주야로 두둥실 떠 있을 제 그때에 남경 갔던 선인들이 억 십만 금 퇴를 내어 고국으로 돌아올 제 인당수 다다르니 심 낭자 효행이 홀연 감동되는지라. 제물을 정히 차려 놓고 심 낭자 혼을 불러 위로하는데,

<중모리>

북을 두리둥 울리면서 슬픈 말로 제 지낸다. 냇이야 냇이야 냇이로다 이 냇이 뉘 냇이냐. 오장원(五丈原)에 낙성(落星)하던 공명의 냇도 아니요, 삼년무우간(三年無雨間)에 초혜왕(楚惠王)의 냇도 아니요. 부친 눈을 띄라 하고 삼백 석에 몸이 팔려 인당수 제수 되신 심 낭자의 냇이로구나. 냇이라도 오셨거든 많이 흠향하옵소서. 제물을 물에 풀고 눈물 씻고 돌아서니 무엇이 떠 있는데 세상에 못 본 바라. 도사공이 하는 말이 저것이 무엇이냐. 금이냐. 금이란 말 씌 당치 않소. 옛날 진평(陳平)이가 범야부(范亞父)를 잡으려고 황금 사만 근을 초진(楚陳) 중에 흘렸으니 금이 어이 있으리까. 그러면 옥이냐. 옥출곤강(玉出崑岡) 아니어든 옥 한 쪽이 있으리까. 그러면 저게 해당화냐. 해당화란 말이 당치 않소. 명사 십리 아니어든 해당화 어이 피오리까. 그러면 무엇이냐 가까이 가서 보자. 저어라 저어라 가까이 가서 보니 향기 진동하고 오색 채운이 어렸구나.

<아니리>

그 꽃을 고이 건져 배에 싣고 본국으로 돌아와 허다히 남은 재물 각기 나눌 적에 도사공은 무슨 마음인지 재물을 마다하고 꽃봉만 차지하였구나. 그때는 어느 땐고 송 천자께서 황후 홀연 붕(崩)하신 후 납비(納妃)를 아니하시고 세상 온갖 기화요초(奇花搖草)를 구하여 황극전 넓은 뜰에 가득히 심어 놓고 꽃으로 벗 삼으실 제,

<중중모리>

화초도 많고 많다. 팔월 부용(芙蓉)의 군자용(君子容), 만당추수(滿塘秋水) 홍연화(紅蓮花) 암향부동(暗香浮動) 월황혼(月黃昏) 소식 전하던 한매화(寒梅花), 진시유랑(盡是劉郎) 거후재(去後栽) 붉어 있는 홍도화. <중략> 백일홍, 영산홍, 왜철죽, 진달래, 난초, 파초, 오미자, 치자, 감자, 유자, 석류, 능라, 능금, 포도, 머루, 어름, 대초, 각색 화초 갖은 향과 좌우로 심었는데, 향풍이 건듯 불면 벌나비 새 짐승들이 지지 울며 노닌다.

<아니리>

이때의 도사공은 천자께서 온갖 기화요초를 구하신다는 소문을 듣고 인당수 떴던 꽃을 어전에 진상하였구나. 천자 보시고 좋아라고 선인을 입시시켜 무창태수로 제수하시고 그 꽃을 후원 화단에 심어 놓고 날로 기꺼워하실 제,

<중모리>

천자 보시고 대화하사 저 꽃이 무슨 꽃이냐, 요지벽도화(搖池碧桃花)를 동방삭(東方朔)이 따온 지가 삼천 년이 못다 되니 벽도화도 아니요, 극락세계 연화꽃이 떨어져 해상에 등등 떠왔는지 그 꽃 이름을 강선화(降仙花)라 지으시고 조석으로 구경하실 제 일야는 천자 심신이 산란하여 화단을 거니는데 뜻밖에 강선화 벌어지며 선녀들이 서 있거늘, 천자 괴히 여겨 너희가 귀신이나 사람이냐, 선녀 예하고 여짜오되, 남해 용궁 선녀로서 심 소저를 모시고 세상에 나왔다가 불의에 천안을 범하였사오니 황공무지하오이다. 말이 지듯 마듯 인홀불견 간 곳 없고 한 선녀만 서 있거늘,

<아니리>

천자 대강 탐문하시니 세상의 심 소저라. 궁녀로 시위하여 별궁에 모셔 놓고 이튿날 만조백관 조회석상에서 간밤 꽃봉 사연을 말씀하시니 제신이 여짜오되, 국모 없음을 하느님이 아옵시고 인도 하심이니 인연으로 정하소서. 천자 옳이 여겨 그날로 택일할 제, 오월오일 갑자시라. 심 황후 입궁 후에 연년이 풍년이요 가가호호 태평이라. 그때에 심 황후는 부귀는 극진하나 다만 부친 생각뿐이로다. 하루는 옥난간에 비껴 앉아 탄식할 제,

<진양조>

추월은 만정(滿庭)하야 산호주렴 비쳐 들 제 청천에 뜬 기러기는 월하에 높이 떠서 뚜루루 길룩 울고 가니 심 황후 후기가 막혀 기러기 불러 말을 한다. 오느냐 저 기러야 소중랑(蘇中郎) 북해상에 편지 전하던 기러기냐. 도화동에 가거들랑 불쌍하신 우리 부친 전에, 편지 일장 전하여라. 편지를 쓰랴 할 제 한 자 쓰고 눈물 짓고, 두 자 쓰고 한 숨 쉬니 글자가 모두 수목이 되니, 언어가 도착(倒錯)*이로구나. 편지를 손에 들고 문을 열고 나서 보니 기러기는 간 곳 없고 창망한 구름 밖에 별과 달만 뚜렷이 밝았구나.

<아니리>

이때 천자 내궁에 들어와 황후를 살펴보니 눈물 흔적이 있거늘, 무슨 근심이 있나니까. 심 황후 여짜오되 천하막 비왕토(天下莫非王土)요 솔토지민(率土之民)이 막비왕민(莫非王民)*이나 세상에 불쌍한 것이 맹인이오니 천하 맹인을 불러들여 황극전에서 한때 위로함이 어떠할까 하나이다. 천자께옵서 칭찬하시고 그날로 행관(行關)하시되 대소 맹인 간 황성 맹인 잔치 불참하면 그 수령은 봉고과직하리라. 이렇듯 전령하여 놓으니 어명인지라 심지어 애기 봉사까지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구나.

- 작자 미상, 「심청가」

* 도착 : 뒤바뀌어 거꾸로 됨.

* 천하막비왕토요 솔토지민이 막비왕민 : 천하가 왕의 영토 아닌 것이 없으며, 나라 안 모든 백성이 왕의 백성이 아닌 것이 없다.

- S :
- BL :
- E :
- R :
- 관계 :
- 개념어 :

1. 아니리 부분은 사건을 전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O, X)
 2. 아니리와 창을 교차하며 판소리의 리듬감을 드러내고 있다. (O, ×)
 3. 전기적 요소를 드러내며 장면을 그리고 있다. (O, ×)
 4. ‘곽 씨’는 ‘심 소저’가 천상에 올라올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O, ×)
 5. ‘도사공’은 ‘심 소저’의 녀를 위로하기 위해 제를 지내고 있었다. (O, ×)
 6. 공간의 이동을 통해 인물 간의 갈등이 점차 심화됨을 보여준다. (O, ×)
 7. 시간의 경과에 따라 아버지에 대한 ‘심 소저’의 그리움이 심화되고 있다. (O, ×)
1. O, 2. O, 3. O, 4. ×, 5. O, 6. ×, 7. O

18) 심생전 - 이옥

스무날째 되는 밤이었다. 여인이 갑자기 마루로부터 내려와 바깥벽을 돌아 심생이 앉아 있는 곳에 이르렀다. 심생은 깜깜한 어둠 속에서 불끈 일어서 여인을 붙잡았다. 여인은 조금도 놀라는 기색이 없이 낮은 소리로 말했다.

“도련님은 소광통교 변에서 만난 분이 아니세요? 저는 이미 스무날 전부터 도련님이 다니시는 줄 알았답니다. 저를 붙들지 마세요. 한번 소리를 내면 다시는 여기서 못 나갑니다. 절 놓아 주시면 제가 뒷문을 열고 방으로 드시게 할게요. 얼른 놓으세요.”

심생은 끈이 들고 물러서서 기다렸다. 여인은 획 돌아서 들어가 버렸다. 방에 들어가서는 계집애를 부르더니, “너 엄마한테 가서 큰 주석 자물쇠를 주시라고 하여 갖고 오너라. 밤이 깜깜해서 사람이 겁이 나는구나.”

하여, 계집애가 옷방 마루로 건너가서 금방 자물쇠를 들고 왔다. 여인은 열어 주기로 약속한 뒷문에도 아귀진 쇠꼬챙이를 분명히 꽂고 다시 손으로 자물쇠를 채웠다. 일부터 쇠를 채우는 소리를 찰카닥 내었다. 그리고 곧 등불을 끄고 고요히 잠이 깊이 든 듯하였으나 실은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심생은 속임을 당하여 분통이 났다. 한편 생각하면 그나마 만나 본 것만도 다행이다 싶었다. 여전히 쇠를 채운 방문 밖에서 밤을 새우고 새벽에 돌아가는 것이었다.

그는 다음 날에 또 가고, 다음 날에도 갔다. 방에 쇠가 채워져 있어도 조금도 해이해짐이 없이, 비가 오면 유삼(油衫)을 돌려 쓰고 가서 옷이 젖어도 관계하지 않았다. 이렇게 다시 열흘이 지났다. 밤중에 온 집안이 모두 쿵쿵 잠 들었고, 여인 역시 등불을 끄고 한참이나 있다가 문득 발딱 일어나서 계집애를 불러 얼른 등에 불을 붙이라고 재촉 하더니,

“애, 너희들 오늘 밤엔 옷방으로 가서 자라.”

한다. 두 계집애가 방문을 나가자, 여인은 벽에 걸린 섯대를 가지고 자물쇠를 따고 뒷문을 활짝 열었다.

심생을 부른다.

“도련님, 들어오세요.”

심생은 얼떨떨하여 자기도 모르게 몸이 벌써 방에 들어와 있었다. 여인은 다시 그 문에 쇠를 채우고 심생에게

“도련님, 잠깐 앉아 계세요.”

하고는 옷방으로 가서 자기 부모를 모시고 나왔다. 그 부모는 보고 어리둥절하였다. 여인은 말을 꺼내었다.

“놀라지 마시고 제 말을 들어 보세요. 제 나이 열일곱으로 발걸음이 일찍이 문밖을 나가지 못하옵다가, 월전에 우연히 임금님의 거동을 구경하고 돌아오던 길에 소광통교에서 덮어쓴 보자기가 바람에 날려 걸히었습니다. 마침 그때 한 초립 도령과 얼굴이 마주쳤어요. 그날 밤부터 도련님이 안 오시는 날이 없이 이 방문 밑에 숨어 기다린 지 이제 이미 삼십 일이 지났답니다. 비가 와도 오시고, 추위도 오시고, 문에 쇠를 채워 거절해도 역시 오시었어요. 저는 꿈꿈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일 소문이 밖으로 퍼져서 동네 사람들이 알게 되면 밤에 들어왔다가는 새벽이면 나가는 데 자기 홀로 창벽 밖에서 있는 줄을 누가 믿겠습니까. 사실과 다르게 누명을 뒤집어쓰지요. 제가 틀림없이 개에게 물린 꿩이 되는 셈이에요. 그리고 저분은 양반댁 도령으로 지금 바야흐로 청춘이라 혈기가 아직 정치 못하여 다만 나비와 벌이 꽃을 탐낼 줄만 알고 바람과 이슬에 맞음을 돌보지 않으니 며칠 못 가서 병이 나지 않겠습니까? 병들면 필시 일어나지 못하리니, 그렇게 되면 제가 죽이지 않았어도 제가 죽인 셈입니다. 비록 남이 모르더라도 반드시 저에게 화가 미치게 될 것입니다. 또 제 몸은 한낱 중인(中人)집 딸에 불과합니다. 제가 무슨 절세의 경성지색(傾城之色)으로 꽃이 부끄러워할 만한 용모를 지닌 것도 아닌데, 도련님께서 술개를 보고 매로 여기시어 제게 지성을 바치되 이토록 부지런히 하옵습니다. 제가 만일 도련님을 따르지 않으면 하늘이 반드시 싫어하시어 복을 제게 주시지 않을 거예요. 제 마음을 정하였습니다. 부모님께서서는 근심하지 마옵소서. 아! 저는 부모님께서 연로하시고 동기간이 없으니 시집가서 데릴사위를 맞아 살아 계실 때에 봉양을 다하다가 돌아가신 뒤에 제사를 모시면 제 소망에 족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제 일이 뜻밖에 이렇게 되었으니, 이 역시 하늘의 뜻입니다.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여인의 부모는 더욱 어안이 병병했으나 달리 할 말이 없었고, 심생은 더욱 아무 말도 못 했다.

그래서 그날부터 심생은 밤마다 여인을 만났다. 애타게 사모하던 끝에 그 기쁨이야 오죽하였으리요. 그날 밤 이후

로 심생은 저물녘에 집에서 나갔다가 새벽에 돌아왔다.

여인의 집은 본래 부유했다. 그로부터 심생을 위하여 산뜻한 의복을 정성껏 마련해 주었으나, 그는 집에서 이상하게 여길까 보아서 감히 입지 못하였다.

그러나 심생이 아무리 조심을 하여도 심생의 부모는 그가 바깥에서 자고 오래 돌아오지 않는데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절에 가서 글을 읽으라는 명이 내리었다. 심생은 마음에 몹시 불만이었으나, 부모의 압력을 받고 또 친구들에게 이끌리어 책을 싸들고 북한산성으로 올라갔다.

선방(禪房)에 머문 지 근 한 달 가까이 되었다. 심생에게 여인의 한글 편지를 전해 주는 사람이 있었다. 편지를 펴 보니 유서로 영영 이별하는 내용이 아닌가. 여인은 이미 죽은 것이다.

<중략>

심생은 이 편지를 받고 자기도 모르게 울음과 눈물을 쏟았다. 이제 비록 슬프게 울어 보나 무엇하겠는가. 그 뒤에 심생은 붓을 던지고 무변*이 되어 벼슬이 금오랑에 이르렀으나 역시 일찍 죽고 말았다.

매화외사(梅花外史)* 가로되, 내가 열두 살 때에 시골 서당에서 글을 읽는데 매일 동접(同接)들과 더불어 이야기 듣기를 좋아하였다. 어느 날 선생이 심생의 일을 자세히 이야기해 주시고,

“심생은 나의 소년시 동창이다. 그가 절에서 편지를 받고 통곡할 때에 나도 곁에서 지켜보았더랬다. 급기야 심생이 겪은 일을 듣게 되었고 지금까지 잊지 못하고 있구나.”

하시고, 이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 풍류 소년(風流少年)을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일에 당해서 진실로 꼭 이루겠다는 뜻을 세우면 규방 여인의 마음도 얻을 수 있거늘, 하물며 문장이나 과거야 왜 안 되겠느냐.”

하시었다.

우리들은 그 당시 듣고 매우 새로운 이야기로 여겼는데, 훗날 『정사(情史)』*를 읽어 보니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많았다. 이에 이것을 『정사(情史)』의 이야기 중 하나로 추가하려 한다.

- 이옥, 「심생전」

* 무변 : 무관(武官). 군에 적을 두고 군사 일을 맡아보는 관리.

* 매화외사 : 이옥의 호.

* 『정사』 : 명나라 때의 문인 풍몽룡이 남녀 애정과 관련된 중국 역대의 이야기를 모아 엮은 책.

- S :
- BL :
- E :
- R :
- 관계 :
- 개념어 :

1. 요약적 서술을 통해 이야기 전개 과정에 속도감을 부여하고 있다. (○, ×)
2. ‘여인’은 ‘심생’에 대한 적개심을 보여주기 위해 일부러 자물쇠를 채웠다. (○, ×)
3. ‘여인’은 비유를 활용하여 ‘심생’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
4. ‘여인’의 죽음으로 인해 ‘심생’은 삶의 허무함을 느끼고 있다. (○, ×)
5. 매화외사는 인물의 상황에 대한 심정적 동조를 드러내고 있다. (○, ×)
6. 시대적 배경의 구체적 묘사를 통해 독자에게 현실감을 주고 있다. (○, ×)
7. 서술자를 교체하면서 새로운 사건을 드러내고 있다. (○, ×)

1. ○, 2. ×, 3. ○, 4. ○, 5. ○, 6. ×, 7. ×

19) 바리데기 - 작자 미상

(가) (임금이) 여봐라 군노 사령. 그 부인이 자는 방 안에 오늘 아무래도 이상한 일이 있사오니 순산을 시키는가 보다. 그러니 아들인지 딸인지 여서 바빠 분부를 아뢰라고 군노 사령을 보낸다.

군노 사령 거동 보소.

대문전에서 아기 순산하도록 기다릴 적에

상서로운 기운 반공하더니만 아기 응아 하는 소리

사십에 탄생을 하다가 보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기절하는구나.

그 자리에서 기절하니 여러 각각 유모들이 아기를 받아 보니 공주가 분명하다.

일곱째로 낳은 자식을 딸로 낳다 보니 여러 유모들이 목욕을 시켜서 비단 저고리 입혀 공단 포대기에 싸가 아랫목에 놔 놓고 부인이 정신을 차려서 첫국밥을 달러 가지고 들오니

부인요, 부인요, 첫국밥을 드시옵소서.

첫국밥을 갖다가 지왕판에다 놓고 권하오니

이때야 부인이 하는 말이,

이봐라 딸이나 공주더냐, 아기를 여기에 데려와 보자.

아이고, 대비 마마여 공주를 탄생했나이다.

그 말을 듣더니마는 그 자리에서 기절하여 또 넘어간다.

아이고, 답답해라. 아이고, 답답해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내 팔자야. 내 팔자야 내 신세야.

공 들여 낳은 자식 딸이란 말이 웬 말이고?

소 마구간에나 갖다 버려라. 소 짐승이나 잡아 먹게로.

말 마구간에나 갖다 버려라. 말 짐승이나 잡아 먹게로.

짐승 마구간에 갖다 놓으니 아기한테서 상서로운 기운이 반공하니 눈을 뜨지 못하고 그래서 아기를 해치지 못하는가 보더라.

그 길로 돌아와서 군노 사령 거동 보소.

문안드리오. 공주를 탄생했나니까, 태자를 탄생했나니까?

이때야 옥단춘이가 나가더니 공주를 탄생했다고 분부를 아뢰어라.

[중략 부분 줄거리] 임금은 일곱째 딸을 옥함에 담아 강물에 띄워 버렸다. 아기는 바리공덕 할아버지와 할미에게 구출되어 자라는데, 바리데기가 15세 되던 해 임금은 아기 바리데기를 버린 죄로 병이 들고, 바리데기가 불사약을 구해 주어야만 살아난다는 소식에 바리데기를 찾는다.

(나) 눈을 떠서 살펴보니 죽으라고 버린 자식 말도 초면이고 얼굴도 초면이건만은 갑자 사월 초파일 날 꿈속에서 보던 선녀가 바로 네 얼굴이었구나.

그럴 때 내 딸이야 내 공주야. 이제는 역력히 네 얼굴을 봤으니 내가 죽어도 한이 없고 살아도 한이 없고, 죽을 때까지 내 옆에 이제는 떠나지 말고 이별 두 글자를 내지 말고 내 곁에 있어 다오.

손을 잡고 얼마만큼 울었던지

산 사람일랑은 죽지도 않고 살아 있으면 천년만년을 가도 만날 날이 있지마는 죽은 사람은 역력히 떠 나가면 만 날 날이 전혀 없다.

그 죽세는 오늘같이 아버지요 걱정하지 마옵소서.

서천서역 약물 길어서라도 아버지 병을 고쳐 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옵소서.

야야, 그런 말을 말아라. 힘 찬 너의 언니들이 약물 길러 못 가는데 나이 어린 네가 약물 길러 간단 말인가?

아버지요, 그 말 하지 마옵소서. 자식의 도리로서 약물 길어 부모한테 봉양하는 것은 떳떳한 일이고, 부모가 자식한테 떳떳이 효를 받는 것은 떳떳한 일이고,

옛날에 꼭가라 하는 사람도 찬수 공공하려고 눈비 오는 날에 죽순을 얻어다가 부모 공경한 일도 있사옵고, 옛날에 제정이는 아버님 옥에 갇혀 있는데 제 몸을 팔아 속죄한 일도 있사온데, 옛 효자만치 못 할 망정 불효 소녀 자식을 말리거나 마옵소서. 약물 길러 가겠습니다.

오나. 그러면 네 맘이 뜻이 정 그렇다 하게 되면 내가 붙잡을 도리가 있겠느냐마는 그렇지마는 이별 두 글자가 또다시 생겼구나.

갈대 부인의 거동 보소. 야야 바리테기야 야야 바리테기야. 너를 지금까지 이별하구서 살았더니마는, 아버님 살리려고 약물 길러 약수 삼천 리 먼먼 길에 약물이 어디 있다고 네가 간단 말이나? 아이구 내 딸이야 내 딸이야. 이별 두 글자가 또 생기고 너와 나와 또다시 이별한단 말인가? 내 딸이야 내 딸이야. 눈먼 자식이 효자질 한다고 이런 경사가 어디 있겠나? 여봐라, 갓은 풍악을 올려서 바리테기 약수 삼천 리 가는 길에 맘이라도 위로해 가지고 목욕이라도 시키시고 좋은 옷을 입혀 갓은 음식을 장만해 대우를 해서 보내야 안 되겠나?

이리하여 삼천 궁녀 꽃밭 속에 갓은 풍악 속에 바리테기 앞에 가만 앉혀 놓고 살펴보니, 하늘에서 내려왔던 무슨 선녀 같고 날아가는 기러기 같고 날아가는 두견새 같고. 얼마나 자식에 사랑이라 하는 부모 마음은 말할 길이 전혀 없는데, 내일 오시가 되면 약물 길러 간다 하는 바리테기 얼굴을 살펴보니 처량하기 짝이 없고 구슬프기 한이 없어, 갓은 풍악에 눈물로, 흘리는 눈물을 머금고 딸아기를 한 번 들고 한 번 얼워 본다.

- 작자 미상, 「바리테기」

- S :
- BL :
- E :
- R :
- 관계 :
- 개념어 :

1. 비유적 진술을 통해 인물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 ×)
2. 전기적 요소를 활용하여 비현실적인 장면을 그리고 있다. (○, ×)
3. 반복적 표현을 통해 인물의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 ×)
4. ‘임금’과 ‘부인’은 아들을 간절히 원하였다. (○, ×)
5. ‘불사약’은 불우한 처지를 극복하려는 ‘바리테기’의 의지가 담겨 있다. (○, ×)
6. ‘임금’은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있다. (○, ×)
7. 공간의 이동을 통해 인물 간의 심화된 갈등을 보여주고 있다. (○, ×)

1. ○, 2. ○, 3. ○, 4. ○, 5. ×, 6. ○, 7. ×

20) 채봉감별곡 - 작자 미상

[앞부분 줄거리] 채봉과 장필성은 서로 사랑을 하여 혼인을 약속하고 채봉의 어머니는 둘을 약혼시킨다. 한편, 채봉의 아버지 김 진사는 벼슬을 받기 위해서 허 판서에게 돈을 주는 것과 채봉을 허 판서의 첩실로 들이는 것을 약속한다. 약속의 대가로 채봉의 직위를 얻게 된 김 진사는 집으로 돌아온다.

김 진사가 방에 들어와 갓을 벗어 부인에게 주니, 부인이 받아 벽에 걸고 반겨하며 옆에 앉는다.

“아이고 반가워라. 올해 운수가 겹겹이 좋구려. 영감은 참봉 벼슬을 하시고, 우리 채봉은 혼인을 정하고, 그런데 왜 혼인 정했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라시오?”

“아참, 우선 듣기가 급하니 어서 말부터 하오.”

“그러니까 대동문 밖에 사는 진 선천부사 아들과 혼인을 정했다고요.”

“아니, 선천부사 아들과 혼인을 정해? 그 거지 같은 녀석하고? 흥! 기막힌 사윗감을 정하고 내려왔으니 채봉을 데리고 우리 서울로 올라가서 삼시다.”

부인이 이 소리를 듣고 눈이 휘둥그레져서 물었다.

“기막힌 사위가 누구란 말이오?”

김 진사는 계속 허풍을 떨었다.

“누군지 알면 깜짝 놀랄 것이오. 누구이고 하니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세도를 떨친다는 사직골 허 판서야!”

부인은 한편으로는 끄찍하고, 한편으로는 기가 막혀서 다시 물었다.

“허 판서면 정실이란 말이오, 부실이란 말이오?”

“그게, 정실도 아니고 부실도 아닌 별실이라도.”

“에구, 나는 그렇게는 못 하겠소. 허 판서가 아니라 허 정승이라도!”

김 진사가 짜증을 냈다.

“왜 못 해?”

“영감도 서울 가시더니 이상해지셨구려. 예전에 늘 말씀하시기를 얹전한 신량을 택해서 슬하에 두고 걱정 근심이 나 하지 말자고 하시더니, 오늘 이게 무슨 말씀이오? 그래, 금지옥엽으로 기른 귀한 딸을 남의 집 첩으로 준단 말이오?”

“허허, 아무리 남의 첩이 되더라도 호강하고, 몸 편하면 그만이지.”

“남의 눈에 가시가 되어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 바늘방석에 앉은 것 같은 텐데 무슨 호강이오? 나는 죽어도 그런 호강은 안 시키겠소!”

김 진사가 이 말을 듣고 열이 바짝 나서 무릎을 탁 치며 큰 소리를 냈다.

“이런 답답한 사람을 봤나. 판소리 말고 내 말을 좀 들어 봐! 나중에는 춤추며 좋아할 일이 있다니까!”

“무엇이 그리 좋은 일이 있어 춤을 춘단 말이오?”

“내가 벼슬도 없이 그냥 늙어 죽을 것을 허 판서가 주선하여 참봉이 됐지. 또 내일이면 과천 현감을 할 터이고, 이제 채봉이 그리 들어가 살면 평생 호강하며 살거니와 나는 감사도 하고, 참판도 할 것이란 말이오. 그러면 마누라는 정경부인은 누워서 떡 먹기인데 이런 좋은 일이 또 어디 있소? 두말 말고 데리고 올라갑시다.”

부인이 정경부인이라는 소리에 귀가 솔깃해졌다.

“흠흠, 영감이 기어코 하시겠다면 나인들 어떻게 하겠소마는 채봉이 말을 잘 들을지 모르겠소.”

채봉은 이때 초당에 앉아 책을 읽다가 부친의 음성을 듣고 취향을 데리고 내당으로 들어오다가, 자신의 혼인 이 야기 소리에 걸음을 멈추고 서서 듣고 있었다. 이윽고 말소리가 그치자 부친 앞에 나와서 날아가듯 절을 했다.

“아버님, 먼 길에 안녕히 다녀오셨습니까?”

김 진사가 채봉을 보자 안 그래도 귀한 딸이지만 더욱 기특한 생각이 들어서 등을 어루만졌다.

“오, 잘 있었더냐? 그래, 그간 글공부도 하고, 바느질도 많이 익혔느냐?”

그러고는 부인을 쳐다보고 병글병글 웃었다.

“여보 마누라, 이제는 우리 채봉이 바느질 같은 것은 배워도 쓸 데가 없겠구려. 침모가 있어서 다 해 바칠 터이니.”

채봉이 이 말을 듣고는 얼굴을 숙이고 두 뺨에 붉은색을 띠었다. 김 진사가 다시 채봉을 보았다.

“애야, 너는 재상의 별실이 좋으냐, 여염집의 부인이 좋으냐? 아비, 어미 앞인데 부끄러울 것이 무엇이냐? 네 생각을 말해 보아라.”

채봉이 여염집 처녀 같으면 부모가 이런 말을 물으면 부끄러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할 터였다. 하지만 채봉은 원래 학식도 있을 뿐만 아니라 장필성의 일을 잠시도 잊지 않았기에 서슴지 않고 태도를 바로 잡고 말했다.

“차라리 닭의 부리가 될지언정 소의 꼬리는 되기 싫습니다.”

“허허허, 그 자식! 내가 남의 별실 구경을 못 해서 그런 소리를 하는가 보다. 별실도 이런 시골에서나 천대를 받는 것이지, 재상 집 별실 노릇은 세상에 그런 호강이 없느니라.”

부인이 이 말을 가로막고 김 진사를 쳐다보았다.

“영감은 자식한테 별 말씀을 다 하시는구려. 계집에는 그저 부모가 하는 대로 좇아가는 법이지. 너는 네 방으로 가거라.”

이렇듯이 채봉을 보내고 두 내외는 서울 올라갈 의논을 하고, 그날로 집안 재산을 모두 팔아서 서울 갈 준비를 했다.

이때 채봉은 초당으로 나와 장필성의 일을 생각하며 홀로 탄식을 했다.

“뜨구름 같은 이 세상에 부귀공명이 무엇이고? 그토록 나를 사랑하던 우리 부모가 하루아침에 나로 하여금 믿음을 배반하고 천한 첩이 되라 하시니, 가엾고 한심한 일이로구나. 그러나 부모는 부귀에 눈이 어두워 그러하지만, 나는 여자의 몸이 되어 한 번 허락한 마음 변치 않으리라.”

채봉은 탄식 끝에 눈물로 옷깃을 적셨다.

- S :
- BL :
- E :
- R :
- 관계 :
- 개념어 :

1. 배경 묘사를 통해 사건의 전개 방향을 암시하고 있다. (○, ×)
2. 대화를 통해 인물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
3. 등장 인물의 내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 ×)
4. ‘이 부인’은 세속적인 이익을 좇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
5. ‘채봉’은 개인의 신념에 따라 사랑을 이루려는 주체적인 인물이군. (○, ×)
6. ‘김 진사’의 결정은 ‘채봉’과 ‘장필성’의 사랑에 방해가 될 수 있겠군. (○, ×)
7. 시간의 역전적 구성을 통해 사건을 입체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 ×)

1. ×, 2. ○, 3. ○, 4. ○, 5. ○, 6. ○, 7. ×

21) 임진록 - 작자 미상

한강을 막던 도원수 김명원이 한 번 싸움도 못하고 달아난 것이 부원수 신각은 억울했다. 그리하여 김명원에게 개 같은 놈이라고 면박을 하고 혼자 한강을 지킬 수 없어 백여 명 군사를 거느리고 유도대신 이양원을 따라 양주로 갔다. 그들은 때마침 함경도에서 군사를 거느리고 내려온 이혼을 맞아 의기가 충천했다. 그들은 계님이 고개에 진을 치고 서울에서 동북으로 넘어오는 왜적을 물리치기로 했다. 왜적은 자꾸 뒤를 이어 들어와 이미 서울은 왜군으로 꼭 들어찼고, 제1군, 제2군이 선봉을 다투어 임진강으로 향하고 제4군 삼길성, 도진의흥이 거느린 군사가 고양, 양주로 넘는 판이었다.

이양원, 신각, 이혼이 합세하여 계님이 고개를 지키고 있을 때, 인천부사 이시언이 기병을 거느리고 양주 장수원에 있다가 왜병이 나타났으니 원병을 와 달라는 기별을 보내왔다. 신각이 계님이 진을 이양원, 이혼에게 맡기고 달려가니 벌써 싸움은 벌어져 있었다.

신각이 군사를 출발 속에 숨긴 뒤 언덕에 올라가 내려다보니 이시언의 진은 산을 의지하여 있고 왜적은 백사장 모래밭을 진지로 삼고 있었다. 신각은 한 가지 계교를 생각해 내었다. 적을 완전히 소탕할 계략으로 먼저 군사를 지휘하여 오던 길로 되돌아가서 산골짜기에 숨었다. 오십여 명 궁노수를 출발 속에 숨긴 뒤에 일시에 쇠뇌를 쏘니 적병은 골짜기에서 쓰러지듯 하고 적진은 삽시간에 수라장이 되고 말았다. 그러자 때를 놓칠세라 신각이 긴 칼을 휘두르며 적의 목을 베어 갔다.

완전히 소탕을 한 뒤 밤늦게 계님이 본진으로 돌아온 그는 계님에게도 오래지 않아 적병이 올 것이므로 방비를 잘 하자고 서로 격려했다. 그리하여 신각이 선봉이 되고 이양원이 중군, 이혼이 좌익, 함께 돌아온 이시언이 우익을 맡아 보기로 했다. 이들은 이윽고 나타난 왜적 천여 명을 가을 낙엽 떨어지듯 목을 떨어뜨리고 계님이 고개 싸움을 승리로 이끌었다. 유도대신 이양원은 신각의 공로를 찬양하고 계님이 승리를 임금께 보고하였다.

그런데 한편 임진강 나루에 진을 치고 있던 도원수 김명원은 신각에게 욕먹은 것이 분하여 생각 끝에 임금에게 장계를 올렸다. 신각은 교만 방자하여 도원수의 명령을 어기고 제멋대로 양주로 갔으니 군법을 시행하시옵소서 하는 내용이였다.

평양에 피란을 가 있는 임금이 양주 싸움을 알 리가 없었다. 김명원의 장계를 보니 신각이 군율을 어지럽게 한 자라, 반드시 죄를 주어야 옳겠는데 그 정도가 어떠한지 몰라 신하에게 의논을 구했다.

우의정 유흥이 아뢰었다.

“마땅히 목을 베어 징계함이 옳을 줄 압니다.”

좌의정 윤두수가 또 아뢰었다.

“지금 국난은 크웁고, 인재를 귀한 판국이오니 파직을 시켰다가 다시 기용하도록 하시옵소서.”

우의정이 다시 일어섰다.

“지금 임진강을 지키는 싸움은 국가의 흥망이 달린 판이온데 군율을 어긴 자는 목을 베어 징계해야 사기가 왕성해질 것입니다.”

그는 신각을 죽이기를 주장했다. 마침내 이에 결정을 본 임금은 상방검(尙方劍)을 끌러 선전관에게 내어 주고, “네 이 칼을 가지고 부원수 신각을 수죄한 다음에 목을 베거라.” 하였다.

기막힌 세상이었다. 공을 이룬 충신을 죽이고 왜적을 보고 달아나는 놈이 살아나는 판국이였다.

선전관이 양주로 떠난 날 저녁, 파발마가 뛰어들며 장계를 올렸다. 그것은 유도대신 이양원이 올린 장계였다. 양주 계님이로 퇴진한 후 부원수 신각과 남병사 이혼과 인천부사 이시언이 합세하여 적을 막고 있다가 왜적 천여 명을 몰살시키고 적의 머리 일흔 급을 베었는데, 신각의 공이 그중 가장 크다는 내용이였다. 왜적이 부산에 상륙하여 임진강에 들어오기까지 이런 승리는 처음 있는 일이었다. 기쁜 마음이 된 임금은 한편 신각을 죽이려 보낸 일이 뉘우쳐졌다. 어서 파발을 놓아 신각을 죽이지 말라고 분부를 내렸다. 그러나 시간이 이미 늦었다.

계님에서는 군사를 모아 놓고 선전관이 품 안에서 홍보(紅褌)에 싼 교지를 꺼내 들고 읽기 시작했다.

“부원수 신각은 어명을 받아라. 도원수의 절제를 받지 않고 제 마음대로 양주로 가서 군율을 어지럽혔으므로 군법을 시행하여 목을 베도록 하노라.”

억울하기 짝이 없는 처분이었다. 신각은 기가 막혔다. 장내 또한 고요했다. 선전관은 다시 금포(錦袍)에 쓴 상방검을 신각에게 주며,

“상감이 내리시는 칼을 받으시오.” 했다.

부원수 신각은 두 손으로 칼을 받아 들고,

“이놈! 도원수야!”

하고, 자기 목을 칼로 콕 찢었다. 모든 장수와 군사들이 통곡을 하며 시체를 묻을 때 평양에서 다시 선전관이 내달으며 부원수 신각을 죽이지 말라 했지만 이미 모든 일은 끝이 난 뒤였다.

- 작자 미상, 「임진록」

- S :
- BL :
- E :
- R :
- 관계 :
- 개념어 :

1. 고사를 활용하여 풍자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 (○, ×)
2. 간결한 문체를 사용하여 사건을 속도감 있게 전개하였다. (○, ×)
3. 서술자가 직접 개입하여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 ×)
4. ‘신각’은 병력 지원 요청을 하기 위해 양주로 향하였다. (○, ×)
5. ‘신각의 죽음’은 당시의 무능력한 지배층의 결과로 볼 수 있겠군. (○, ×)
6. ‘김명원’은 한강에서 왜적을 물리치지 못하고 달아났다. (○, ×)
7. ‘신각’이 싸우는 장면에서 비현실적이고 환상적인 모습이 드러난다. (○, ×)

1. ×, 2. ×, 3. ○, 4. ×, 5. ○, 6. ○, 7. ×

22) 육미당기 - 서유영

이윽고 일제히 배에 올라 닻을 걷고 돛을 달아 본국으로 향하여 돌아올 제, 바다 가운데에 이르러 거둑 역풍을 만나 배를 부리기 어려워, 조그마한 섬에 정박해 정히 순풍을 기다리더니, 멀리 큰 배 하나가 바람을 타 돛을 달고 오되 빠르기가 나는 듯한지라, 점점 기슭에 가까이 오매 한 소년 동자가 금관을 쓰고 비단 도포를 입은 채 뱃머리에 나와서 묻기를,

“배 안의 여러 사람들은 신라국 태자의 일행인가?”

배 안의 여러 사람들이 본국 배의 모양인 것을 보고 크게 기뻐 일제히 뱃머리에 나와,

“그러하다.” 대답하니, 그 소년이 또 묻기를,

“그러면 태자는 어디 있는고?”

태자 김소선이 부두 쪽에 있다가 왕자 세징의 음성을 듣고 놀라움과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황망히 나와 두 배를 가까이 닿게 한 후 김세징의 손을 잡고 묻기를,

“형께서는 어찌 바다를 건너 이곳에 이르렀으며, 부왕의 병환은 과연 어떠하시니까? 모후의 귀체도 안녕하시니까?”

세징이 손을 뿌리치고 뒤로 물러나 서서 화를 내며 안색을 바꾸어 가로되,

“아직 부왕의 병환은 묻지 말고, 자죽순은 과연 얻어 왔는가?”

소선이 줄지에 세징의 기색이 다름을 보고 어찌 일컬을 바를 알지 못하여, 급히 배 안으로 들어가 자죽순을 내어 두 손으로 세징에게 받들어 올리거늘, 세징이 소매 속에 거두어 놓고 크게 꾸짖어 가로되,

“부왕께서 내가 영약을 구한다 가탁하고 외국으로 나와 참람되이 모반을 도모함으로 인하여 우려하심이 날로 깊고 병환이 날로 더하실새, 나를 명하여 중도에서 맞아 죽이라 하시니, 네 이제 어찌 죄를 피하리오?”

소선은 천성이 본래 효심과 우애가 모두 깊은지라, 평일에 세징의 흉악함이 이 같은 줄을 몰랐더니, 갑자기 이 말을 들으니 벼락이 머리 위에 떨어지는 듯하고, 칼날이 가슴을 에어 내듯 한지라, 당황스럽기 그지없어 능히 대답지 못하고 뱃머리에 엎드려 통곡할 뿐이라.

세징이 노복을 시켜 죽이기를 재촉하니, 소선이 울며 고하여 가로되,

“이미 부왕께서 죽으라 하시니 감히 모면해 살기 어려울지라. 병환의 어떠하심을 알지 못하고 죽사오니, 이것이 원통함이로소이다.”

세징이 대답지 않고 거둑 죽이길 재촉하니, 소선이 애걸하여 가로되,

“죽기는 일반이라. 원컨대 시체나 온전히 하여 주심을 바라나이다.”

세징이 이를 허락하여 그 행중에서 독약을 내어 소선의 두 눈에 바르고, 노복으로 하여금 잡아서 바다 가운데 던지더라.

태자의 일행이 당초에는 왕자 세징이 좋은 뜻으로 와서 영접하는 줄 알았더니, 갑자기 이러한 변을 당하여 서로 돌아보며 실색하여 태자의 무고히 해 입음을 슬퍼하고, 세징의 잔인함을 분히 여겨 모두 통한하여, 마음으로는 세징을 죽여 태자의 원수를 갚고자 하나, 다만 세징이 이미 왕명이라 칭하고 또 수하에 장정을 많이 거느렸으므로 감히 손을 놀리지 못하고 일시에 소리 내어 통곡하니, 세징이 크게 노하여 노복을 호령하여 각각 칼과 창을 들어 여러 사람을 어지러이 살육하니, 여러 사람이 다 손에 아무 무기도 없어 저항 못하고 나란히 죽임을 당해 한 사람도 살아남자 없더라.

[중략 부분 줄거리] 물에 빠진 소선은 예전에 자신이 살려 주었던 거북의 도움을 받아 가까스로 물에 오른 뒤, 유구왕 백문현의 도움을 받고 그의 딸 백 소저와 약혼한다. 이후 황성이 가 황제의 총애를 받으며 옥성 궁주와도 가까이 지내던 중, 우연히 모친의 편지를 전하는 기러기를 만나 눈을 뜨고, 기러기 편에 모친께 답장을 보낸다.

왕비가 보기를 다하고 소리 내어 크게 우니 궁중이 떠들썩한지라. 왕이 왕비의 곡성을 듣고 급히 내전에 들어와 태자의 수찰을 보고 또한 통곡하여 마지아니하니, 궁중 내외에 서로 말을 전하여 하루 동안에 나라 안에 가득한지

라. 태자가 죽지 않고 중국에 있던 말을 듣고 경탄치 않은 자가 없으며, 기뻐하는 소리가 우레 같더라.

왕비가 울며 왕께 고하여 가로되,

“소선이 어린 나이로서 태어나서부터 당의 섬돌을 내려가지 않았거늘, 이미 위험을 무릅쓰고 바다를 건너다가 폭풍을 만나 물에 빠졌으니 비록 천신의 보호함을 입어 고기 뱃속에 장사 지내지는 않았으나, 천신만고를 다 지내 도로에 유리하며 중국에 들어갔으니, 이것이 어찌 사람의 견딜 바이리오? 생각이 이에 이르면 은연중 간장을 빼어 내는 듯하온지라, 원컨대 대왕은 빨리 사신을 보내어 천자께 아뢰어 소선이 일찍 돌아옴을 얻도록 청하여 여러 해 쌓인 그리운 마음을 위로케 하옵소서.”

왕이 곧 외전(外殿)*으로 나와 중국에 사신 보내기를 의논할새, 여러 신하가 다 표를 올려 칭하하더라.

이때에 왕자 세징이 자신이 건넌 자죽순을 먹고 왕이 무사히 살아났고, 또 태자가 이미 바다에서 죽은 줄 알고 조금도 개의치 아니하였더니, 천만 뜻밖에 붉은 기러기가 왕래하며 편지를 전함으로 인해 태자가 죽지 아니하고 오래지 않아 나라에 돌아온다는 말을 듣고 크게 놀라 얼굴빛을 잃어, 비록 요행 태자의 편지 가운데 자기가 죽으려 한 말을 쓰지 아니하였을지라도 혹 태자가 환국한 후에는 본래의 자취가 탄로날까 염려되어 그 돌아오기를 기다려 또한 중로에서 자객을 보내어 태자를 해하여 입을 막고자 하더라.

- 서유영, 「육미당기」

* 외전 : 임금의 거처하는 전각(殿閣)을 내전(內殿)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

- S :
- BL :
- E :
- R :
- 관계 :
- 개념어 :

1. 작중 인물의 시점으로 바뀌어 인물 성격 변화의 묘미를 주었다. (○, ×)
2. 심리 묘사를 통해 인물의 고조된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 ×)
3. 대화와 행동을 통해 인물의 성격을 제시하고 있다. (○, ×)
4. ‘김소선’은 부왕의 병환을 고치기 위해 약을 구하러 나간 것이다. (○, ×)
5. ‘김소선’은 ‘김세징’의 행동으로 인해 눈이 멀게 되었다. (○, ×)
6. ‘태자의 일행’을 제거하는 장면을 요약적으로 제시하였다. (○, ×)
7. 시대적 배경을 섬세하게 묘사하여 사회 현실의 문제를 드러내었다. (○, ×)

1. ×, 2. ○, 3. ○, 4. ○, 5. ○, 6. ○, 7. ×